

2022년
제주국제평화센터-한국평화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2022년 제주국제평화센터-한국평화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2022년
제주국제평화센터-한국평화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시 2022년 9월 23일~24일

장소 제주국제평화센터 대회의실



주최 | 제주국제평화센터, 한국평화종교학회

주관 |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

후원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목 차 ☐

☐ 프로그램	3
〈제1세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종교	5
•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7
• 제주 4.3사건과 분쟁 그리고 종교 안신(배재대학교)	37
•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위인규(선학UP대학원)	49
〈토론문〉	
염승준(원광대학교)	69
안연희(선문대학교)	73
도현섭(선학UP대학원)	77
강화명(선문대학교)	79

황진수(선문대학교)	83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87

〈제2세션〉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 강화 89

• 제주의 국제교류 특징과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정지형(제주연구원)	91
------------------	----

•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교육 기능강화 방안

현치훈(제주국제평화센터)	103
---------------------	-----

〈토론문〉

홍석훈(창원대학교)	113
나용우(통일연구원)	117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119
리은경 (연세대학교)	121

〈종합토론〉 분쟁과 종교, 그리고 평화 122

〈토론문〉

주재완(선문대학교)	124
------------------	-----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30~14:00 (30')	등록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 관람
	개회식
14:00~14:20 (20')	개회사: 고경민(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 환영사: 김민지(선학평화연구원장) 기념촬영
	<제1세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종교 좌장: 김민지(선문대학교)
14:30~16:30 (120')	발표 1: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오기성(경인교대) 발표 2: 제주 4.3사건과 분쟁 그리고 종교 / 안신(배재대) 발표 3: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 위인규(선학UP대학원) 토론 1: 염승준(원광대학교), 안연희(선문대학교) 토론 2: 도현섭(선학UP대학원), 강화명(선문대학교) 토론 3: 황진수(선문대학교),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16:30~16:40 (10')	휴식
	<제2세션>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 강화 좌장: 고경민(제주국제평화센터장)
16:40~18:00 (80')	발표 1: 제주의 국제교류 특징과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 정지형(제주연구원) 발표 2: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교육 기능강화 방안 / 현치훈(제주국제평화센터) 토론 1: 홍석훈(창원대학교), 나용우(통일연구원) 토론 2: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리은경(연세대학교)
	<종합토론> 분쟁과 종교, 그리고 평화 좌장: 이찬수(서울대학교)
18:00~18:30(30')	주재완(선문대학교),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황진수(선문대학교) 홍석훈(창원대학교), 나용우(통일연구원), 고경민(제주국제평화센터장)
18:30	폐회

〈제1세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종교

발표 1: 오기성(경인교대)

발표 2: 안신(배재대)

발표 3: 위인규(선학UP대학원)

토론 1: 염승준(원광대), 안연희(선문대)

토론 2: 도현섭(선학UP대학원), 강화명(선문대)

토론 3: 황진수(선문대),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분쟁과 평화, 종교의 관계
- III. 북아일랜드 트러블 전후 종교의 역할
- IV. 결론

I. 서론

지구촌에서 무력충돌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분쟁 국가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폭력의 유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의 대다수는 빈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개발의 정도가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쟁의 실상과 폐해, 고통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후(post-conflict)’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과 사회경제적 발전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의 실상은 분쟁 후 분단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컨대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남아공, 르완다, 캄보디아, 콜롬비아, 스리랑카 등 분쟁 후 겪고 있는 평화와 화해를 향한 여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례들 중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국가는 약 30여년 동안 트러블(Troubles)로 상징되는 분쟁을 겪은 북아일랜드이다. 북아일랜드의 30년 폭력 분쟁의 주축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신교 대 가톨릭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¹⁾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영국과의 연합을 선호하는 충성주의(Loyalism)와 통합주의(Unionism)에, 가톨릭은 아일랜드 공화국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가려고 하는 한편, 현재의 제도를 제국주의의 오랜 역사의 일부로 파악하는 공화주의(Nationalism)와 민족주의(Republicanism)를 표방한다.

내전은 북아일랜드의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두 공동체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고 조시켰다. 폭력과 괴로움 속에서 생존한 당시 세대는 1990년대에 성인이 되었다. 이들은 내전의

1) Niens, Ulrike, Chastenay, Marie-Helene, Educating for Peace? Citizenship Education in Quebec and Northern Ireland,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2(4) (2008), p.523.

트라우마와 함께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 실직 등의 고통을 겪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결국 이 시기의 분쟁은 단순히 사상자와 부상자의 양산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지역 사회의 분열을 증가시켰다.²⁾ 그러나 1990년대에 양측의 준 군사조직에 의한 일련의 휴전과 폭력사태 재발 등의 과정 속에서도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전 상원의원이 주재한 포용적 평화회담을 통해 1998년 4월 성금요일협정(Good Friday Agreement) 또는 벨파스트 협정(The Belfast Agreement)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는 본격적인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협정의 완전한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북아일랜드가 아직 협정 이전의 폭력과 비관주의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쟁 사회의 갈등과 관련하여 사회 과학자들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갈등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종교는 실제로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는 갈등 자체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많은 관찰자들이 북아일랜드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명백한 충돌 외에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에서는 분쟁 이전 종교가 극도로 분열을 야기한 동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개신교도 대 가톨릭교도의 종교 분쟁이라는 시각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반면 이러한 분쟁의 역사속에서도 오늘날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와 화해의 움직임과 관련한 긍정적인 징후는 사회의 화해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종교 공동체의 존재이다.³⁾ 아울러 교육적 차원에서는 통합교육과 공유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간의 공존과 화해를 추구하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분쟁 후 사회로서 트러블로 상징되는 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화해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북아일랜드 분쟁과 평화프로세스 관련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평화교육적 노력에 대한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북아일랜드가 피의 일요일로 상징되는 트러블 속에서도 종교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연구 실태 하에서 이 연구는 분쟁 후 사회로서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고찰하기 위해, 첫째, 이론적 배경 차원에서 분쟁과 평화, 화해형성 과정에서 종교의 기능과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살펴보고, 둘째, 트러블 이후 평화와 화해를 위

2) 오기성(2021), “분쟁(Trouble) 이후 북아일랜드의 교육적 노력-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초등도덕교육』, 73, p.56

3) Martha Abele MacI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1990), p.135.

해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노력을 고찰하며, 셋째, 이상의 이론 및 사례 고찰을 통해 분쟁 후 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해야 할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쟁과 평화, 종교의 관계

1. 분쟁과 평화구축에서 종교의 기능

종교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세대, 사회계층, 성별, 민족성 외에 특정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소속 및 귀속의 주요 범주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가 상대를 차이가 아닌 차별로 규정하고자 할 때 갈등이 야기된다.

종교는 수사학적인 언어와 이미지로 상징, 내러티브, 해석 및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자신이 소유한 세계관을 가치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절대화하는 경우이다. 이 때 종교적 또는 세속적 신념과 가치 자체가 갈등의 뿌리가 되거나 방아쇠가 될 수 있다.⁴⁾ 이는 곧 종교가 갈등과 충돌의 매개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종교가 폭력적 갈등의 동인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신앙과 갈등 사이의 연관성은 종교가 차별과 배제라는 구조적 폭력의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이러한 추론은 자신의 종교를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고,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 진리를 견지하고 있다고 과도하게 여길 때, 강력한 경계를 세우고 공동체내 집단 간의 치열한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인류학자들은 종종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종교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구한다. 정치학자들은 종교가 내집단과 외집단의 고유한 분리를 통해 사회 내부와 국제 무대 모두에서 구조적 폭력의 동인일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갈통(Johan Galtung, 1969)은 우리가 다양한 수준의 폭력의 존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교가 특정 형태의 폭력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의 한 형태로서 '문화적 폭력'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⁵⁾ 갈통은 종교와 폭력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

4) Katharina Heyden, Martino Mona, Coping with religious conflicts –Introducing a new concept in conflict research, *Z Religion Ges Polit*, 5(31), (2021), p.381.

5)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167-191; Sara Silvestri, James Mayall Fba, *The Role of Religion in Conflict and Peacebuilding*, London: The British Academy, 2015, pp.14-16.

기보다는, 종교, 이념, 언어, 민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배척, 차별, 그리고 결국 육체적 폭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방식과 행동을 형성하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문화적 폭력으로서 종교가 작동할 경우, 폭력적 요소로는 교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강요하기 위한 시도, 집단에 대해 경계 짓기, 그리고 개인의 자기 파괴적 행동, 심지어 자살 공격 등을 들 수 있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에 기반한 갈등 사례는 지구촌에서 다수 발견된다.⁷⁾ 예컨대, 수백 명의 사망자와 광범위한 인구이동을 야기한 미얀마 라카인 불교도와 로힝야 무슬림 사이의 폭력사태,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 단체들 사이의 긴장으로 인한 사회 분열 심화 및 산발적인 폭탄 테러와 지속되는 극한의 치명적인 공격 사례, 케냐에서 20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몰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해 조직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사례, 특히 맘바사에서 무슬림과 기독교 성직자들이 살해되거나 사라지면서 폭동이 심화되고, 2014년 이슬람 민병대가 북동부 지역과 연안의 기독교 단체들을 직접 겨냥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한 사례, 레바논에서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이 증가 사례, 특히 수니파(Sunni)와 시아파(Shi'ite) 간 종파간 충돌 사례, 불교 승려들이 무슬림 단체와 치명적인 충돌을 빚은 바 있는 스리랑카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가 무력충돌이나 분쟁, 갈등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종교적 요소와 정체성은 2013년 지구촌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갈등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갈등은 또한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2013년 발생한 35건의 무력충돌 중 30건은 한 가지 이상의 원인,⁸⁾ 즉 인권 침해, 자치 정부 요구, 반정부 운동, 자원 및 지역 통치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이 항상 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갈등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전쟁에서 종교적 측면은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특징 중 하나일 뿐이다.

반면 이러한 평화구축에 반하는 갈등과 폭력을 야기한 종교의 기능 측면과 달리 긍정적 측면 사례와 이를 옹호하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종교가 평화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종교 간 대화 및 기타 종교적 동기 부여

6) European Parliamentary(2016), Religious organis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 *Briefing*, November 2016, p.2.

7) Fletcher D. Cox, Catherine R. Orsborn, and Timothy D. Sisk(2014), Religion, Social Cohesion and Peacebuilding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Research Report, Sié Chéou Kang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Diplomacy at the University of Denver

8) IEP, *Five Key Questions Answered on the Link between Religion and Peace*,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January 16, 2015); Vicenç Fisas Armengol et al., Alert 2014! *Report on conflicts, human rights and peacebuilding*, Escola de Cultura de Pau, UAB (2014), p.18.

운동을 통해 평화 구축 차원에서 종교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나아가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 더 많이 분포된 국가가 낮게 분포된 국가에 비해 일정 정도 더 평화로운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자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긍정적 입장에서 종교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평화를 가져오는 동기 또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특히 종교는 사회적 결속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더 광범위한 종교적 개입은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평화의 유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들은 종교가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보유자로서, 불의에 맞서기 위한 도덕적 토대로서, 화해를 촉진하는 지렛대로서, 평화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 국가 및 그룹의 동원자로서, 그리고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기로서 기능할 경우, 평화증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⁹⁾

종교가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와 기관이 중재하고 평화를 만든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와 아프리카 교회총회(Conférence des Eglises de toute l'Afrique, AACCC)는 수단에서 1972년 평화 협정을 중재한 바 있다. 가장 극적이면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1992년 모잠비크 내전 종식을 돕기 위해 로마에 기반을 둔 산 에지디오(Sant'Egidio)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중재한 사례이다.¹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다양한 교회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의 선봉에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종식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끈 인물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Anglican Church of South Africa)의 투투(Desmond Mpilo Tutu) 대주교였다.

이러한 사례는 무엇보다 분쟁을 겪는 사회에서 집단적 정체성, 특히 종교적 정체성이 폭력적 갈등의 주요 원인일 경우, 전통적인 외교가 평화나 갈등 관리를 추구하는 데 독점적인 가치를 갖지 않음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외교적 접근 이외에도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문화적 접근이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분쟁 상황에 있는 한 쪽 또는 양 당사자 측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양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다.¹¹⁾ 종교적 또는 영적 기반에서 활동하는 개인으로서 종교지도자들은 종종 정치 지도자보다 개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9) Denys Brylov, Tetiana Kalenychenko, Andrii Kryshchal, *The Religious Factor in Conflict*, Utrecht, The Netherlands: PAX, 2021, p.6.

10) David R. Smock, "Religious Contributions to Peacemaking: When Religion Brings Peace, Not War," *Peaceworks*, 55 (2006)

11) Mohammed Abu-Nimer, Conflict Resolution, Culture, and Religion: Toward a Training Model of Interreligious Peacebui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38(6), (2001), pp.685-686.

수 있는 종교적 자산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의식(다른 문화적 의식과 마찬가지로)은 적개심을 협력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종교는 또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영적 자원을 가져올 수 있다. 종교적 평화 구축의 영적 차원은 기계적 및 도구적 갈등 해결 모델에서 배제되었던 구성원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참여의식과 헌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분쟁 후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분쟁 중 또는 분쟁 후 사회의 갈등에서 종교의 역할은 전통적 정치학이나 자원 갈등 이론(resource conflict theories)의 설명의 범주를 넘어선다. 예컨대, 국가 기반 중재 및 국가간 대화 기반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많은 갈등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외교적 접근과 해결책은 분명한 결점이 있다. 더욱이, 무력에 기반한 전략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더 큰 도전과 폭력을 초래할 뿐이다.

지구촌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갈등, 그리고 이와 관련한 두려움과 무력감이 커지는 이 세계에서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차선책은 지역 종교 및 전통 구조를 갈등 해결 및 국가 건설 과정에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할 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프레저와 프리드리(Owen Frazer and Richard Friedli)는 이라크 종교간 회의(Iraqi Inter-Religious Congress), 카슈미르에 있는 국제 종교 및 외교 센터의 신앙 기반 화해(the International Center for Religion and Diplomacy's faith-based reconciliation) 노력, 모로코의 살라피 포로 안시판나(Ansifûna initiative of Salafi prisoners) 이니셔티브, 시에라리온 종교간 협의회(Inter-Religious Council of Sierra Leone), 타지키스탄의 세속-이슬람주의 대립(secular-Islamist confrontation in Tajikistan) 사례 연구를 통해 분쟁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다섯 가지 사고방식 도는 관점을 도출하였다.¹²⁾ 그들이 제시한 종교에 대한 관점은 공동체로서의 종교, 일련의 가르침으로서의 종교, 영성으로서의 종교, 실천으로서의 종교, 담론으로서의 종교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첫째, 공동체(community)로서의 종교는 종교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갈등이 존재할 때, 종교는 집단 내부와 집단 간에 사회적 결속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중요한

12) Owen Frazer Richard Friedli, *Approaching Religion in Conflict Transformation: Concepts, Cas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Zurich: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15, pp.6-7, 11-15.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 강화라는 동일한 역학이 집단 간 경계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쟁 중인 집단의 정체성이 종교적 요소를 갖는 경우, 종교적 정체성의 경계를 따라 갈등을 겪는 경계선이 그려질 수 있다. 이때 종교는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지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체성의 표지(identity-marker)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련의 가르침(a set of teachings)으로서 종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전승된 가르침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르침은 사회내 응집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상이한 집단들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정 집단이 사회의 현실과 모순되는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 그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갈등에 빠진 행위자들이 종교적 신념과 교리를 준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행동과 평화를 촉진하려는 행동 모두에 해당된다.

셋째, 영성(spirituality)으로서의 종교는 개인의 궁극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영적 경험은 갈등을 유발하든 평화를 촉진하든, 사회적·정치적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영성의 공유된 경험은 또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성은 내면적 믿음과 믿음에 기반한 생활방식(신앙, 희망, 회복력, 낙담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별적인 일상 생활의 일부일 수 있지만, 종종 공동체 생활(예: monastery, ashram, fraternity, Zendo, Sufi circle)에서도 경험된다.

넷째, 관례(practice)로서 종교에서는 종교를 일상 생활, 음식, 의복 등과 일련의 규범처럼 제제정된 제정 관행(관습, 의례, 의례)에 따라 생활하는 관습과 같은 것으로 본다. 사회는 소통과 의식의 공동체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체성의 표시자(markers)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담론(discourse)으로서의 종교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어와 언어로 이해되기도 하고, 심층적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총체적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실재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1990)』이라는 저서를 통해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Peter Berger and Thomas Luckman)은 세상이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실재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했다.¹³⁾ 따라서 이러한 이해 내의 특정 담론은 단순히 정해진 의사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전체적 방식에 따른 표현이다. 린드백(George Lindbeck)은 그의 저서 『The Nature of Doctrine(1984)』에서 종교를 "

13) Peter Berger and Thomas Luckman,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Books, 1990

삶과 생각의 전체를 형성하는 일종의 문화 또는 언어적 틀이나 매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⁴⁾ 종교를 일련의 가르침이나 실천이 아닌 담론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점은 그것이 고유한 내부 논리를 가진 구성된 체계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내의 갈등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서로 다른 담론이 서로 대면할 때 이해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체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진술이 다른 체계에서는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종교에 대한 이상의 다섯 가지 관점은 갈등에서 종교의 역할 탐색 및 심층적 갈등 분석을 위해 유용한 일련의 질문을 생성한다. 프레저와 프리드리는 이를 '긴장의 원천으로서 갈등과 분열 기능(dividers)'와 '평화역량으로서 평화·화해 기능(connectors)'의 범주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기능적 측면과 그 하위 질문들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분쟁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하위 질문

	갈등과 분열 기능(dividers)	평화·화해 기능(connectors)
공동체로서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들은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과 기관들의 어떤 활동이 긴장과 갈등을 자극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경계(conflict lines)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공유된 종교적 정체성(shared religious identity)이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과 기관들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구축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련의 가르침으로서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다른 일련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나 해석은 어떻게 의견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떻게 종교적인 가르침이 평화 증진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가? 공통적 근거(common ground)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영성으로서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분열적인 행동이 행위자들의 영적 경험에 의해 동기부여되는가? 배타적인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공유된 영적 경험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적인 경험은 행위자들의 평화 촉진 행동을 어떻게 동기화하는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 공유된 영적 경험들(shared spiritual experiences)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관례로서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쟁과 분열의 근원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관례(practices)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담론으로서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담론과 서사(discourses and narratives)가 충돌하는가? 반대되는 담론의 배후에 있는 다른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해(understanding)의 문제가 분열에 기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의 어떤 그룹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담론을 가진 집단들의 경우임에도 의견 불일치를 극복한 역사적 혹은 현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Owen Frazer and Richard Friedli(2015), *Approaching Religion in Conflict Transformation: Concepts, Cas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Zurich: Center for Security Studies), p.7, 10의 재구성.

14) Lindbeck, G., (1984), *The Nature of Doctrine*, London: SPCK, p. 33.

위의 표에서 제시된 종교에 대한 이상의 다섯 가지 관점, 그리고 갈등·분열 기능, 평화·화해 기능에 따른 일련의 질문들은 분쟁 후 사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분석을 위한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대체로 분쟁 이전 및 분쟁 과정에 있는 사회에서 활용하는데 의미있는 분석틀로서 갈등·분열 기능 관련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분쟁 해결과정 및 분쟁 후 사회에서 평화·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은 평화·화해 기능 관련 질문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후자, 특히 분쟁 후 평화·화해 형성을 위한 종교의 기능을 분석 틀로 삼아 분쟁 후 북아일랜드에서 평화·화해를 일구어 가는 여정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Ⅲ. 북아일랜드 트러블 전후 종교의 역할

1. 북아일랜드 트러블(Troubles)과 평화

북아일랜드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신교계 통합주의자들이 아일랜드의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정책으로 인해 개신교 대 가톨릭, 통합주의 대 민족주의 간의 갈등으로 발생했다. 아일랜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은 기원전 5세기 경 이주한 켈트계이며 기원전에는 로마인, 9세기 노르만족, 12세기 앵글로 색슨족 등 외세의 침입을 계속 받아왔다. 1171년 영국의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공하면서 13세기 중반까지 아일랜드의 4분의 3가량이 영국령이 되었고, 16세기 초 헨리 8세 시기에는 영국 내 종교개혁이 실시되면서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와 탄압이 심화되었다. 아일랜드에서 갈등이 심화된 계기는 17세기 초 영국정부의 보호 하에 개신교도들이 전통적인 가톨릭교도가 다수였던 아일랜드의 북부 얼스터 지역으로 이주하면서부터이다.¹⁵⁾ 1801년 영국의 연합법(act of union) 제정으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하게 되어 가톨릭도인 아일랜드인과 영국계 개신교도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19년경부터 준군사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군(Irish Republic Army: IRA)을 비롯하여 아일랜드국민당(Irish Nationalist Party: INP)과 신페인당(Sinn Fein) 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과의 무력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1922년 아일랜드의 남부 26개 주(county)는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으로 독립

15) Karen Murphy, Education Reform through a Transitional Justice Lens: The Ambivalent Transitions of Bosnia and Northern Ireland, Clara Ramirez-Barat and Roger Duthine et al., *Transitional Justice and Education: Learning Peac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17.

하였다.¹⁶⁾ 그러나 아일랜드 북부의 6개 주에 있는 상당수의 개신교 인구가 영국과의 연합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섬은 분할되었고, 그 결과 벨파스트에 의회가 있는 별도의 북아일랜드 국가, 즉 영국의 통치를 받는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일랜드가 1920년에 분할되어 아일랜드 공화국(남쪽으로)과 북아일랜드의 6개 주가 탄생했을 때, 개신교 다수가 북부를 개신교 국가로 통치했으며, 가톨릭 소수파는 이등 시민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가톨릭교도들은 사회에서 더 큰 발언을 마련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고용과 주거에서 평등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북아일랜드에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대략 19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아일랜드와 영국 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적대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1년 아일랜드 공화국 탄생에 대해 영국은 일정 정도 승인하는 한편, 북동지역 아일랜드의 6개 주는 예외로 영국의 지배하에 들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충돌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졌다. 북동 지역은 17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 인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십만 명의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이 집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북동부는 북아일랜드라는 이름하에 자체 의회, 행정부 및 경찰(Royal Ulster Constabulary, RUC)로 구성된 일종의 영국의 한 지방으로 설립되었다. 개신교도의 압도적 다수로 구성된 중무장한 경찰과 통치 행위를 수행하는 의회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50여년 동안 공포와 강압이 결합된 반가톨릭 차별정책을 정착시켰다.¹⁷⁾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측의 불만은 북동부를 아일랜드 공화국과 재통일시키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조직과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이 이끄는 폭력 행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과의 연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통합주의(Unionism)는 이를 통제하는 주축 세력이었으며, 여기에 영국의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 개신교가 이를 후원해주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는 정체성의 뿌리였으며, 나아가 충돌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었다.

50여년간 차별을 당연시 해온 영국의 정책은 마침내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 영감을 받은 가톨릭 교도들이 거리로 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종료되었다. 그러나 RUC의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IRA의 재활성화를 가져온 한편, 이를 수습하려는 영국

16) 황수환,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4), (2017), p.34.

17) Ian White, Victim-Combatant Dialogue in Northern Ireland, David Bloomfield, Teresa Barnes and Luc Huyse(eds.),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03), p.89.

군대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에서 아일랜드계의 시위를 진압하러 온 영국 공수부대가 시위 중이던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여 14명이 죽고 13명이 다친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준군사조직 IRA가 영국군과 RUC에 대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보복적인 연합주의 준군사조직인 충성파(Royalist)의 결성을 가져왔다. 약 30여년간 진행된 충돌은 주로 북아일랜드에서 진행되었지만 IRA는 또한 영국의 군사 및 경제적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을 시작했으며 충성파는 때때로 공화국 국경을 넘어 공격했다. 트리블(Troubles)이라 지칭되는 이 북아일랜드 분쟁 시기 동안 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30년 동안의 분쟁은 매우 치명적이었으며 많은 사망과 부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지역사회 분열의 증가를 초래했다. 다행히도 1990년대에 양측의 준군사적 집단에 의한 일련의 휴전은 결국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 협정으로, 개신교에서는 벨파스트 협정으로 지역적으로 알려지게 된 정치적 합의로 이어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평화 프로세스는 특히 두 지역 사회의 반체제 인사들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¹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렇듯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력적 갈등에 얽매이던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로 전환된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최근의 평화구축 활동의 주요 성공 중 하나이자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갈등을 전환시킨 모델(conflict transformation work)로 간주되었다.

2. 분쟁 과정에서 종교와 정파

앞서 본 바와 같이 30년이 넘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주요 행위자는 대부분이 가톨릭교도들로서 아일랜드 공화국의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공화주의자들과, 대다수가 개신교도들로서 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의 통합을 희망하는 통합주의자(Unionists)와 충성주의자(Loyalists)라고 할 수 있다.¹⁹⁾ 북아일랜드의 두 주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적 목표, 즉 독립과 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주요한 갈등의 축을 살펴보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자신을 영국인으로 생각하고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도 통합주의자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자신을 아일랜드인이라 생각하면서 통일아일랜드를 추구하는 가톨릭교도 민족주의자 간의 대립이 가장 두드러진다.²⁰⁾ 그런데 보다 세밀하게 보면, 민족주의자

18) Ulrike Niens, Ed Cairns(2005), Conflict, Contact, and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Theory into Practice*, 44(4), p.338

19) Niens, Ulrike, Chastenay, Marie-Helene, Educating for Peace? Citizenship Education in Quebec and Northern Ireland,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2(4) (2008), p.523.

내부의 정치적 균열도 발견된다. 즉 민족주의자 가운데 폭력의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 급진적 세력인 공화주의자와, 이들과 달리 영국을 중립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공화주의자의 폭력투쟁이 아일랜드섬의 통일(unity)을 성취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민족주의자간의 정치적 균열이다. 민족주의자는 사회민주노동당(SDLP: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으로 대표되는 반면, 공화주의자는 무장투쟁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군(IRA: Irish Republican Army)와 신페인(Sinn Féin) 정당으로 대표된다. 공화주의자들은 아일랜드섬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국의 철수와 통일아일랜드를 지향한다.

반면 통합주의자 내부에서도 정치적 균열이 존재한다. 즉 폭력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통합주의자인 동시에 영국여왕에 충성을 다짐하는 극단적 충성파(loyalists)와 아일랜드섬의 분단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단은 오히려 아일랜드섬 남부가 영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통합주의자가 균열의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적 충성파는 IRA를 북아일랜드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통합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중도우파 정당인 UUP (Ulster Unionist Party)와 보수주의 정당인 DUP(Democratic Unionist Party), IRA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충성파의 준군사조직으로는 얼스터방위연합(UDA, Ulster Defence Association)이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과정을 종교와 정치노선, 분쟁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아일랜드 분쟁은 한편으로 지배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파와 영국과의 부분적 타협파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일랜드를 지배하기 위한 영국의 종교 정책이 다시 정치 및 민족적 갈등을 더 부추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심층적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남북 아일랜드 사이의 분쟁은 정치, 종교, 민족주의 등 여러 원인이 얽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역사적으로 아일랜드 공동체에서 전승되어 온 종교적 전통은 제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민족-정치적 차이와 중첩되어 분열 패턴과 권력 차이를 강화했다. 팔코너(Alan D. Falconer)은 종교가 아일랜드의 여러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강압심리(coercion mentality)'와 개신교 공동체의 '포위심리(siege mental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²²⁾

17세기 초 영국정부의 비호 하에 개신교도들이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북부 얼

20) 구갑우,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탈식민지적/탈분단적 평화과정 비교하기,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서울: 울력, 2019, pp.47-49.

21) 이찬수, “분쟁의 심층, 정체성 갈등과 평화다원주의의 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9, (2019), p.396.

22) Alan D. Falconer, The Role of Religio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Bulletin of Peace Proposals*, 21(3), (1990), pp.274-276.

스티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개신교'는 '가톨릭'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폭력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의 기억은 가톨릭으로 인해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감각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북아일랜드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포위심리(siege mentality)가 존재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서는 강압 심리(coercion mentality)가 존재한다. 이것은 식민지화됨으로써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보는 심리를 말한다. 이러한 심리에서는 이전 수세기 동안 법과 국가, 교회의 제도들이 특정한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들을 떠올린다. 이러한 강압의 반복성은 개신교 공동체의 포위심리와 유사한 강압심리로 이어졌다.

아일랜드의 이러한 역사적 감각은 공동체들을 서로 가두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관계는 '자폐증적(autistic)'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데, 그 곳에서는 서로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반면 교회는 아일랜드 내 공동체들의 담당 사제(chaplains)로서의 역할을 했고,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정체성에 바탕이 되는 상반된 신학을 발전시켰다. 개신교도들의 포위심리는 주변 민족의 유혹과 억압에 저항하는 신에게 진실된 민족인 선민신학(a theology of the Elect People)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이러한 선민신학은 이안 페이즐리(Ian Paisley) 박사의 수사(rhetoric)을 통해 정치 영역에서 명백해졌다. 페이즐리주의(Paisleyism)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스티브 브루스(Steve Bruce)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부인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페이즐리와 통합주의의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태도임을 보여주었다.²³⁾ 결국 신학은 북아일랜드 통합주의자 공동체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교도들의 '강압심리(coercion mentality)'도 마찬가지로 희생신학(victim theology)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는데, 이 신학은 그리스도와 정의로운 고통받는 자를 동일시하고자 한다. 1916년 부활절 봉기 당시 아일랜드에서 희생신학은 특히 두드러졌다. 아일랜드 애국자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유사했고, 그러한 희생이 창출할 수 있는 민족정신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유사했다. 아일랜드는 그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된 민족, 즉 아일랜드인의 피를 바치는 궁극적인 희생에 의해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간주되었다. 에이먼 매캔과 리처드 키어니(Eamonn McCann and Richard Kearny)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신학은 북아일랜드의

23) Steve Bruce, *God Save Ulster!: The Religion and Politics of Paisley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Alan D. Falconer(1990), *The Role of Religio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Bulletin of Peace Proposals*, 21(3), pp.274-275에서 재인용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고에서 분명하게 견지되었다. 그 후, 교회들은 그들의 신학적 관점을 통해 각 공동체의 반대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신학적 행동 양식,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신학적 틀을 제공했다.

조직 내지 기관으로서, 교회들은 그들 각각의 공동체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선언들을 발표했다. 북아일랜드의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성직자들은 폭력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비난했지만,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차별의 특징들을 명확히 표현했고, 그들의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의 독립성을 촉진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이 지향한 얼스터 통합주의 노선(Ulster Unionist line)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협의와 심의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앵글로-아일랜드 협정(Anglo-Irish Agreement)에 반대하였다.

반면 기관으로서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동체들의 정체성과 정치적 자세를 강화하지만, 그들은 또한 공동체의 긴장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기독교 교파간에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4대 교회의 수뇌부는 매월 만나 협의를 하고, 특히 긴장과 박탈감이 있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함께 방문하였다. 기관으로서의 교회들은 또한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와 신학적 질문들을 함께 다루는 아일랜드 교회 간 협의회를 설립했다.

개별 교회인들과 기독교 공동체들은 북아일랜드 정치에 대한 성찰과 정치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동체 출신의 정치인들을 한자리에 모으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1960년대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Irish Council of Churches)와 다양한 주류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오닐의 개혁(reforms of O'Neill)과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을 지지했으며, 개신교가 민권 행진자들을 공격하고 가톨릭 지역을 통과하는 전통적인 개선 행진으로 가톨릭교도들을 공격한 사례를 비난했다.

70년대와 80년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 공유(power-sharing arrangement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고문에 가까운 경찰의 심문 방식과 같은 부당함에 항의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은 IRA의 폭력을 정기적으로 비난하고 아일랜드에서 비폭력적인 정의 추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1974년 후반에 Feakle에서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과 IRA 지도자들 간의 과단성이 있는 회동을 제외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주도과 행동을 취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1985년 영국-아일랜드 협정을 환영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은 얼스터 개신교 공동체의 의견의 반영없이 체결된 이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3. 분쟁 해결 및 평화·화해를 위한 노력

30여년간의 치열한 분쟁 속에서도 북아일랜드에서 종교공동체, 종교조직들의 분쟁 해결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회에 화해를 가져오겠다는 종교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 중점을 두는 접근은 신과 타인과의 개별적인 화해나 사회적 수준의 화해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개인주의에 중점을 두는 접근은 지배적인 개신교 집단에 의해 역사적으로 영속되어 온 사회적 부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수준의 초점은 그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관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양측의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사회 차원에서의 접근은 지배적인 사회 집단으로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권제도의 개혁을 포함하는 이른바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요구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간다. 이러한 초점의 차이는 화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기도에 중점을 두는 관조적인(contemplative) 모델과 보다 활동적인(activist) 현실 참여 모델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²⁴⁾

활동적인 현실참여 모델은 분쟁의 상처, 적대감과 증오심을 넘어 평화와 화해를 이끌어 내 고자 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난다. 종교지도자들은 1973년 썬닝데일협정(Sunningdale Agreement) 이후 198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약 25년 이상 기나긴 화해 과정에서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개신교 근본주의자와 달리 주류 개신교 목회자들은 가톨릭의 준군사조직과 정치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희생자와 가해자들의 대화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²⁵⁾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 측면에서 교회는 화해의 내용과 도구를 가지고 분쟁 해결을 위해 접근하였다.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에서 갈등당사자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만날 수 없다고 여길 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관련 단체들은 먼저 나서서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이 다른 개신교 교도인 이안 헤이즐리(Ian Paisley)와 가톨릭 교도인 게리 아담스(Gerry Adams)의 일련의 협상과정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서 종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주통합당을 창설한 개신교 목사 이안 헤이즐리는 썬닝데일 협정에 반대하였으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성앤드류 협정(St. Andrews Agreement)에서 그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신페인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면서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24) Martha Abele Macl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pp.139-140.

25) 전재춘(2014), 북아일랜드의 정치 갈등과 합의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 1969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7-202.

분쟁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수행한 종교 단체로는 단연 코리밀라(Corrymeela)를 들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기독교 화해공동체인 코리밀라는 196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 북아일랜드 화해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코리밀라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국가 내의 종교적, 정치적 차이로 야기된 갈등과 분쟁의 아픔을 신앙과 기도로 해결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화해를 배우는 공간으로서 북아일랜드인들 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²⁶⁾

코리밀라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화합과 신뢰를 촉진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왕국에 헌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곧 화해 활동이라고 말한다. 코리멜라 지도자인 존 모로(John Morrow)와 레이 데이비(Ray Davey)에 따르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변화, 즉 화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과 관련이 있다.²⁷⁾

코리밀라 설립 당시부터 그들이 가진 비전은 상이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코리밀라의 Ballycastle Center로 초청하여 전체 사회에 걸쳐 화해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특히 폭력 사태가 발생한 날에 코리밀라 커뮤니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벨파스트 빈민가의 아이들을 Ballycastle Center로 데려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상화된 분쟁으로 가득 찬 환경(strife-filled milieu)에서 벗어나 같이 놀이를 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이어 휴식 캠프에는 청년들과 가족 전체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노스앤트림(North Antrim) 해안의 센터에서 시작된 화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시도로 벨파스트에서는 청소년 단체와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시작되었고, 학교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이 고용되었다.

1966년 부활절 이후로 코리밀라는 정치인, 준군사조직, 성직자, 수감자의 배우자 및 가족, 그리고 종파적 분열에 연루되어 있는 다른 그룹의 구성원을 모아 더 큰 이해와 협력을 만들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회의를 후원했다. 또한 실업, 차별, 주거와 교육 분리, 교도소 환경 및 치안 정책에서의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치적 안배를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되었다. 소규모로 조직된 코리밀라 실무 그룹은 종종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몸 수색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A Christian Response to Strip-Searching)"이라는 팜플렛과 같은 공개

26) 김경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7), p.273.

27) Martha Abele MacI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pp.140-147.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팸플릿은 이러한 관행이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신교(통합주의) 정치인들이 각종 권력 공유 협정을 받아들이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에 직면하여 코리밀라는 공식적으로 1985년 영국-아일랜드 협정을 환영하였다. 코리밀라에게 협정 체결은 "위기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기회가 열릴 때"인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의미했다. 북아일랜드 국민들이 용서의 정치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코리밀라는 영국-아일랜드 협정이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일련의 정치적 합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공동체의 사명을 "차이를 받아들이고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코리밀라는 대화를 통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좁히고 평등과 다양성, 상호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리밀라는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관용에 의해 '공유된 사회(shared society)'를 세워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⁸⁾ 또한 코리밀라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 뿐 아니라 가족 갈등 같은 개인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아픔이 이야기되고 들려지는 공간이다. 코리밀라는 기독교인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Hospitality)를 베푸는 공동체로 개방되어 있다.

코리밀라와 달리, 북아일랜드에서 종교간 대화를 통해 평화와 화해를 위한 활동적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체로서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The Irish Council of Churches, ICC)를 들 수 있다.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는 내전의 여파로 1923년에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는 회원 교회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공식적인 국가 기구이다. 1923년 1월 첫 회의에는 아일랜드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 퀘이커 종교협회 등 7개의 창립 회원 교회가 있었다. ICC 집행부는 1년에 4번 회의를 개최한다. 당연히 각종 교파 관계자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대통령은 평의회의 공공 대표이다.²⁹⁾

이렇듯 다양한 종교간 대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 설립 취지는 무엇보다 분절된 아일랜드 교회들의 일치를 이루어 종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아일랜드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교회들은 종파와 교파를 따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특히 아이리쉬와 브리티쉬로 분리된 정체성의 근원은 종교적인 다름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근원을 달리가지는 교회와 교회공동체들은 서로의 교육과 삶의 현장을 달리 하며 살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06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소수 성직자들이 모여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영국-아일랜드 조약으로 아일랜드섬은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

28) 김경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7), p.273.

29) <https://www.irishchurches.org/about/who-we-are>

일랜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1969년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북아일랜드에 공민권 운동이 시작되고 이후 1973년 분쟁의 와중에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역사적인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후 아일랜드 교회간 모임으로 공식화되었다.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에는 현재 약 14개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톨릭교회와 제칠일신약 교회가 협의회 총회 옵저버로 참석하고 있다. 또한 ICC와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 정의평화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ICC는 주로 평화와 화해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ICC는 1978년 초등학생용 평화교육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평화교육자료센터를 설립하여 연별 및 세대별 교육자료 발간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³⁰⁾ 무엇보다 개신교와 정교회 간의 대화를 위한 포럼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간 대화 노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개신교도라는 특정 교파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적 모델의 단체로서 174 Trust와 Youth Link를 들 수 있다. 174 Trust는 1983년 가톨릭 교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개신교도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기독교 자선단체이며, 장로교로부터 건물을 인수받아 현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³¹⁾ 종교기관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성격을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톨릭도와 개신교도간의 장벽을 허물고 특정 교파에 소속 또는 편향되지 않은 채 종교적 편견없이 사회친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유가족 및 피해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연령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북 벨파스트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갈등이 없는 안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174 Trust는 개신교와 가톨릭측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거나 볼링과 같은 취미활동을 하는 등 전문적인 치유가 아닌 일상에서의 접근을 중시한다. 이외에도 가톨릭과 개신교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유치원 또는 스포츠 행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등 약 20여개 정도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종교 간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174 Trust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74 Trust는 가톨릭교도 지역에 개신교도 중심의 사회치유기관을 설립했다는 것부터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간’이 평화 구축의 시발점이 되는 좋은 예로 꼽힌다. 174 Trust는 지속적으로 양쪽이 함께 하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개신교 그룹

30) 전재춘(2014), 북아일랜드의 정치 갈등과 합의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 1969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88-189.

31) 최성경, “북아일랜드의 사회치유 기관,” 전우택, 박명림외,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서울: 역사비평사, 2019, pp.41-43.

과 지역사회 그룹 및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노력하고 있다. 또한 174 Trust는 2014년 1월 Duncairn Center for Culture and Arts의 문을 열었다. 이는 예술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장려하는 공유 문화 허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³²⁾ 단적으로 표현하면 특정 교파를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정체성을 넘어 예술을 통해 화해와 문화적 포용성 정신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반면 Youth Link는 1991년 북아일랜드 내 가장 큰 교회(감리교, 장로교, 가톨릭계)가 공동 설립한 초교파적 기관이다. 이 기관은 갈등의 주체가 되는 양쪽이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파간 통합단체(Inter-Church Agency)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갈등구조가 종교에서 시작되었기에 대부분의 북아일랜드 내 사회치유 기관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려 하는 반면, Youth Link는 종교적 특징을 그대로 가진 채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관이 위치해 있는 스프링 필드 로드(Springfield Road)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접전지로 오랫동안 폭동과 민간인 학살, 투쟁과 분쟁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불안정한 가정이 많다, 청소년 비행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의 90%가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로 완전히 분리된 학교에 다니고 있어 사회통합이 쉽지 않다. 그런 환경에서 Youth Link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및 리더십 훈련 등 청소년들이 교회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의 첫 시작은 개신교였다는 점에서 가톨릭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기 꺼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개신교보다 가톨릭 가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신교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개신교적 가치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사회통합 활동에 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리위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임명하는 최대 6명의 이사, 장로교가 임명하는 최대 3명의 이사, 감리교회가 임명하는 최대 3명의 이사, 아일랜드 교회가 임명하는 최대 3명의 관리위원(총칭하여 교단 대표); 그리고 교단 대표가 임명하는 두 명의 이사³³⁾ 등에서 보듯이 종교를 초월한 교파간 통합단체의 면모를 보여준다,

반면, 앞서 제시한 코리밀라, 아일랜드 교회협의회, 174 Trust, Youth Link와 대조적으로 Christian Renewal Center는 아마도 기도에 중점을 두는 가장 관조적인(contemplative) 공

32) Kendall Veenema, 174 TRUST: Designing a Way to Bridge the Cultural Divide, *duncairn-arts_Magazine-1* No.14 (2015, Summer).

33) <https://www.youthlink.org.uk/about/values-vision-mission/>

동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활동에만 참여하고 공동체로서의 정치 활동에는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은 북아일랜드에서 개인의 쇄신과 치유, 화해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센터는 환대(hospitality)를 주요 사역 중 하나로 간주하고 종교 분열 양쪽에 있는 개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한다.³⁴⁾ 물론 Christian Renewal Center의 회원들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갈등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차원의 화해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활동보다는 기도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차별의 종식과 공정한 고용 관행의 확립과 같은 목표와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정부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 진행 중인 모든 정치적 협상을 위해 세심하게 기도한다.

기도에 중점을 두는 또 하나의 관조적 성격의 활동 모델로서 Columba Community를 들 수 있다. Columba Community는 주로 기도와 복음화에 전념하는 공동체이다. 이는 매일 아침기도회, 매주 예배와 찬양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며,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화해를 위한 기도를 넘어선다. 그들은 특히 북아일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 가톨릭 교도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군대와 경찰을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Columba Community는 포로, 특히 전직 준군사 요원들을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개종하려고 노력했다. 전 INLA(Irish National Liberation Army) 멤버 중 한 명은 현재 콜롬바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다른 전 준군사조직들은 비공식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Columba Community는 얼스터 보안군과 영국군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가톨릭 교도들의 급진적인 화해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4. 종교의 평화·화해 형성 기능에 대한 평가

이제 앞서 2장의 이론적 배경 차원에서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 분쟁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관련 질문 중 평화·화해 기능 측면에서 분쟁 후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종교의 노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로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첫째 질문은 갈등 경계선(conflict lines)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공유된 종교적 정체성(shared religious identity)이 있는가의 문제였다. 공통의 종교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북아일랜드 기독교인들은 종교분쟁의 원인을 교파주의라고 규정한다. 교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의 그리스도교라는

34) Martha Abele Macl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pp.143-144.

더 큰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서로의 종교를 형제교회로 보지 않는 독선과 편협성이 분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장에 의해 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큰 신앙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각자의 우산이 아니라 더 큰 우산 속의 두 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운동의 실례로 장로교와 가톨릭이 강단교류를 통해 각 종교의 전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해 운동에 대한 반대도 있다. 일례로, 2004년 장로교회 총회장 켄 뉴웰(Ken Newell) 목사가 가톨릭 대주교를 초청하려고 하자, 개신교의 반가톨릭 세력인 이언 페이지리와 같은 장로교내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북아일랜드 교회의 평화신학자들은 교파주의 극복이 화해 만들기의 관건이라고 말한다.³⁵⁾ 이는 필립 맥도나휴(Philip McDonagh) 전 아일랜드 대사의 “(북아일랜드 분쟁은) 인류 이성이 새롭게 눈을 뜬 20세기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자신들이 믿는 주님을 멋대로 재단한, 그래서 결국 주님의 자리에 악마를 불러들인 인간의 오만함을 돌아보게 한다.”³⁶⁾는 술회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구축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아일랜드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아일랜드 분쟁은 영국과 아일랜드 간 반목의 역사는 물론, 가톨릭·개신교 사이의 종교 갈등, 북아일랜드 내 민족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 갈등 양상이 복잡했던 만큼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도나휴는 영국령으로 잔류를 원하는 얼스터연합당(UUP) 당수 데이비드 트림블(William David Trimble)과 사회민주노동당 당수 존 흄(John Hume)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199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맥도나휴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북아일랜드 인구 다수가 믿고 있는 장로회, 영국 국교인 성공회, 아일랜드 다수 종교인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대화에 앞장섰다. “종교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종교들은 신학적으로 같은 토대 위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도 종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위에 구체적 계획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존중했습니다.”라는 그의 술회는 바로 이를 대변해 준다.

35) 정지석, “북아일랜드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 참된평화를 만드는사람들, 『다름의 평화, 차이의 공존』, 서울: 동연출판사, 2009, pp.176-177.

36) 서상덕(2018),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2) 필립 맥도나휴 전 아일랜드 대사, 가톨릭신문, 제3088호

또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구축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즉 북아일랜드에서 폭력 분쟁 이후 화해 만들기 사역이 역점을 두었던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들의 의식 변화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와 교회도 개신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상호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³⁷⁾ 사람들의 내면 변화가 사회 구조적 변화의 지속적 동력이 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두 진영 사람들 안에 내재해 있는 불신과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나아가 화해가 실제화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런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코리밀라의 평화와 화해 관련 프로그램 중 주목되는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코리밀라의 평화화해 관련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활동
이야기 하기	이야기하기(storytelling)는 개인이나 그룹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공명될 때 행복이 더 깊어진다. 이야기하기와 경청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은 개인이나 그룹에서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하기와 이야기 역동(narrative dynamics)을 배워서 개인, 공동체, 직업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다. '평화를 위한 이야기하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여름학교이다.
DPC (Dialogue for Peaceful Change)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훈련 프로그램으로 '평화적 변화를 위한 대화'이다. 강의, 적용, 코칭, 상황극 연습 등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1주일간 진행되며, 현재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하였다.
문화를 넘어 대화하기	croí 에서 열리는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으로 우정과 신앙으로 타종교와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적대자와 연결하기	적대자들에 대해 어떻게 자비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세미나로서 2017년에는 'Century of Joint Palestinian-Israeli Nonviolence'가 개최되었다.

※ 김경은(2017)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 - 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pp.276-278에서 재구성.

이외에도 아일랜드 교회협의회회의 종교간 대화, 평화교육 자료 발간을 들 수 있으며,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간의 장벽을 허물고 특정 교파에 소속 또는 편향되지 않은 채 종교의 편견없이 사회친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174 Trust의 활동, 사회통합을 위해 성장세대에 대한 청소년 활동 및 리더십 훈련 등 청소년들이 교회와 사회활동에 참여를 주도하는 Youth Link의 활동을 들 수 있다.

37) 김경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7), pp.269-270.

둘째, 일련의 가르침으로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은 어떻게 종교적인 가르침이 평화 증진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와 공통성의 토대 (common ground)를 확인, 제시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코리밀라(Corrymeela)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화합과 신뢰를 촉진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왕국에 헌신하라"는 요구를 통해 화해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북아일랜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의 왕국을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다고 보는 것이다. "콜롬바 하우스의 목표(Aims of Columba House)" 목록에서 "화해"라는 소제목 아래에 인쇄된 성경 본문은 신에 대한 개인의 화해와 기독교 공동체 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 부흥 센터(Christian Renewal Centre)의 설립자인 세실 커(Cecil Kerr)는 화해를 십자가로 상징되는 2단계 과정으로 말한다.³⁸⁾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나타낸다. 그리고 가로줄은 개인들, 심지어 이전의 적들 사이에서도 같은 희생으로 가능했던 화해를 나타낸다. 두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 및 그들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브릭커(Vivian Bricker, 2022)가 잠언(Proverbs) 31장 8-9절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위하여 말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를 바탕으로 순종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대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스스로 일어서듯 우리도 남을 위해 일어서야 함을 역설한 측면 또한 가르침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영성으로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은 평화를 촉진하는 행동이 어떻게 영적인 경험에 의해 동기부여되는가의 문제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 공유된 영적 경험들 (shared spiritual experiences)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코리밀라의 영성 사역에서 볼 수 있다.³⁹⁾ 즉 1980년 이래 코리밀라 공동체는 화해를 영성사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성센터로서의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예배과정에서는 인도자에 의해 달라지는 다양한 예배형식과 예전, 침묵과 성찰을 경험하며 코리밀라 사역의 중심에 영성형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에서 개인의 쇄신과 치유, 화해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Christian Renewal Center의 활동 또한 영성의

38) Martha Abele Macl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pp.140.

39) 김경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7), p.275.

로서 종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센터가 환대(hospitality) 차원에서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이 주목된다.

넷째, 관례로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practices)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코리밀라에서 화해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성경공부와 신학 공부 모임, Power and Spirituality Seminars, 신앙과 화해의 페스티벌인 Carafest, Spirituality of Conflict 등이 그 사례이다. Columba Community 또한 주로 기도와 복음화에 전념하는 공동체, 매일 아침기도회, 매주 예배와 찬양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로서 역할에서 관례로서의 종교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담론으로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은 사회의 어떤 그룹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다른 담론을 가진 집단들의 경우임에도 의견 불일치가 극복되고 있는 역사적 혹은 현대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북아일랜드 분쟁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대해 상충하는 관점에서 찾아진다. 가톨릭과 개신교 두 공동체 모두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서로를 폭력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종교와 교육은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강화시킨다. 따라서 종교조직과 학교는 자신의 공동체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 형성된 특정 역사적 이야기를 가르쳤다. 이러한 경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종교적 담론은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을 통해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무엇보다 이 협정을 통해 각각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이 합법적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중요한 담론의 토대로 제공되었다. 협정은, 또한 화해 과정의 본질적인 측면은 개신교 자녀와 가톨릭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유교육, 가톨릭과 개신교 배경의 사람들의 결혼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관용의 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제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을 초래하는 어느 일방에 의한 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종교공동체가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이 연구는 분쟁 후 사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약 30년간 트러블로 상징되는 폭력과 무력충돌, 상처 등의 분쟁을 극복하고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평화와

화해의 여정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아일랜드에서 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평화 관련 협정은 예비적 기초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앵글로-아이리쉬 협정(1985), 다우닝가 선언(1993), 북아일랜드 신기본 협정(1995)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금요일 협정(1998)과 성앤드류 협정(2006)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점은 성금요일협정이라 불리는 벨파스트협정이다. 이 협정들은 이념, 종교, 종족, 정체성 등 서로 다른 종교와 정파와 집단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일구어낸 값진 성과이다. 이러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은 30여년간의 유혈분쟁을 통해 누적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 증오, 적대감에 집착하여 응보적 차원의 전쟁을 통한 복수를 생각하거나 특정 국가로의 통합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평화공존을 중요시하였다. 나아가 지금 체결된 협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협상을 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서로 다른 정치노선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와 적대성 강화를 통해 폭력과 살상 등의 무력충돌을 가져온 배타적 종교적 정체성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분쟁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 평화의 절실함에 대한 의식은 종교간 대화를 통해 과거 정체성보다는 현재의 평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종교는 이전과 달리 분쟁의 늪에서 평화와 화해로의 길을 북아일랜드가 견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종교는 정치적 참여를 통한 평화형성 뿐 아니라 교육과 치유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화와 화해 의지 형성, 트라우마 치유 등에 기여하였다.

분쟁 후 사회로서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독교의 노력과 성과는 종교가 갈등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평화를 가져오는 동기 또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종교는 사회적 결속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간의 연대 강화와 평화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브릭커(Vivian Bricker)는 과거 북아일랜드 분쟁에서 발생한 개신교 충성파들과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충돌에 대해 성장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이제 서로 물어뜯고, 분열시키고, 파괴하지 말고 갈등을 올바르게 평화롭게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분쟁 후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가 분단과 그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화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평화와 통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울러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이 글의 마무리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거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잔혹한 역사는 우리에게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하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차별이 그림에 있을 때 무고한 피 흘림과 평생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⁴⁰⁾

【참고문헌】

- 강순원, “통일교육,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코리밀라, 상생의 평화배움공동체,” 『통일한국』, (2015, 11).
- 구갑우,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탈식민지적/탈분단적 평화과정 비교하기,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서울: 울력, 2019
- 김경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북아일랜드 코리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7), 261-292
- 김정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서울: 늘품(늘품플러스), 2015.
- 오기성(2021), 분쟁(Trouble) 이후 북아일랜드의 교육적 노력-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초등도덕교육, 73, p.56
- 이찬수, “분쟁의 심층, 정체성 갈등과 평화다원주의의 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9, (2019), 379-410.
- 전재춘, 북아일랜드의 정치 갈등과 합의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 1969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지석, “북아일랜드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다름의 평화, 차이의 공존』, 서울: 동연출판사, 2009,
- 정진화, “아일랜드 평화교육에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다,” 『교육개발』, 46(4) (2019)
- 최성경, “북아일랜드의 사회치유 기관,” 전우택, 박명림외,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서울: 역사비평사, 2019.
- 황수환,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4), (2017), 33-64.

40) Vivian Bricker(2022), What Is the Catholic and Protestant Conflict in Ireland?, 26 Apr <https://www.christianity.com/wiki/history/what-is-the-catholic-and-protestant-conflict-in-ireland.html>

- Berger, Peter, Thomas Luckman,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Books, 1990.
- Bruce, Steve, *God Save Ulster!: The Religion and Politics of Paisley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Chris Hamel, *Where The Fault Lies: A Theoret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Sectarianism and its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Belfast: Trinity College Dublin, 2021.
- David R. Smock, "Religious Contributions to Peacemaking: When Religion Brings Peace, Not War," *Peaceworks*, 55 (2006)
- Denys Brylov, Tetiana Kalenychenko, Andrii Kryshchal, *The Religious Factor in Conflict*, Utrecht, The Netherlands: PAX, 2021.
- European Parliamentary, Religious organis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 *Briefing*, (2016. 11)
- Falconer, Alan D., The Role of Religio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Bulletin of Peace Proposals*, 21(3), (1990), 274-276.
- Fletcher D. Cox, Catherine R. Orsborn, and Timothy D. Sisk, *Religion, Social Cohesion and Peacebuilding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Research Report*, Sié Chéou Kang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Diplomacy at the University of Denver, 2014.
- Ganiel, G., & Yohanis, J., Presbyterians, Forgiveness, and Dealing with the Past in Northern Ireland: Towards Gracious Remembering. *Religions*, 13(1) (2022).
- Ian White, Victim-Combatant Dialogue in Northern Ireland, David Bloomfield, Teresa Barnes and Luc Huyse(eds.),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03)
-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Five Key Questions Answered on the Link between Religion and Peace*,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5.
- Jarman, Neil, Interface, Barriers, Pacelines, and Defensive Architecture, *Belfast Interface Project*, Belfast: Northern Ireland, Queen's University, 2017.
- Karen Murphy, Education Reform through a Transitional Justice Lens: The Ambivalent Transitions of Bosnia and Northern Ireland, Clara Ramirez-Barat and Roger Duthine et al., *Transitional Justice and Education: Learning Peac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17.

- Katharina Heyden, Martino Mona, Coping with religious conflicts -Introducing a new concept in conflict research, *Z Religion Ges Polit*, 5(31), (2021)
- Kendall Veenema, 174 TRUST: Designing a Way to Bridge the Cultural Divide, *duncairn-arts_Magazine-1* No.14 (2015, Summer)
- Lindbeck, G., *The Nature of Doctrine*, London: SPCK, 1984.
- Martha Abele MacI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1990)
- Martha Abele MacIver Emily H. Bauermeister, *Bridging the Religious Divide: Mobilizing for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CA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2)
- Mohammed Abu-Nimer, Conflict Resolution, Culture, and Religion: Toward a Training Model of Interreligious Peacebui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38(6), (2001)
- Morrow, D., Gavaghan D., Kells, R., McCracken, A., Quigley, M., Smyth, P., Stuart, J., McGinn, D., Donaldson, T., McRiche, A., Craigs, K., *Sectarianism in Northern Ireland: A Review*, Belfast: The Sir George Quigley Fund Committee, 2019.
- Niens, Ulrike, Ed Cairns, Conflict, Contact, and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Theory into Practice*, 44(4), (2005), 337-344
- Niens, Ulrike, Chastenay, Marie-Helene, Educating for Peace? Citizenship Education in Quebec and Northern Ireland,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2(4) (2008) 519-540.
- Nolan, P., *The Northern Ireland Peace Monitoring Report: Number One*. Belfast: UK, Community Relations Council, 2012.
- Frazer, Owen, Richard Friedli, *Approaching Religion in Conflict Transformation: Concepts, Cas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Zurich: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15.
- Sara Silvestri, James Mayall Fba, *The Role of Religion in Conflict and Peacebuilding*, London: THE BRITISH ACADEMY, 2015.

Vicenç Fisas Armengol et al., *Alert 2014! Report on conflicts, human rights and peacebuilding*, Escola de Cultura de Pau, UAB, 2014.

〈인터넷 및 언론 자료〉

분쟁의 상처를 봉합하는 평화공동체, 북아일랜드 코리밀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 6. 3.

<https://blog.naver.com/nuacmail/222382854781>

서상덕(2018),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2) 필립 맥도나휴 전 아일랜드 대사, 가톨릭신문, 제3088호

<https://www.oikoumene.org/organization/irish-council-of-churches>

<https://www.youthlink.org.uk/about/values-vision-mission/>

Vivian Bricker(2022), What Is the Catholic and Protestant Conflict in Ireland?,

<https://www.christianity.com/wiki/history/what-is-the-catholic-and-protestant-conflict-in-ireland.html>

WIKI CATEGORY: FACTORS OF CONFLICT,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resence and character of peace or conflict;

<https://blogs.gwu.edu/ccas-panamericanos/peace-studies-wiki/categories/factors-of-conflict/>

제주 4.3사건과 분쟁 그리고 종교

안 신(배재대학교)

1. 서론: “어둠에서 빛으로”

노무현 정부가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에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된 천혜의 섬이다. 이처럼 평화로운 남도에도 금기로 여겨지고 침묵이 강요된 오랜 어둠의 역사가 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인 1948년 4월 3일에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급진세력이 봉기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갈구했던 이 사건은 미군정의 실정,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지만, 군경에 의해 “한국 역사상 한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로는 최대의 참혹한 희생을 초래했다.”¹⁾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정치적 진영논리가 결부되면서 여전히 첨예한 분쟁과 대략의 담론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들어, 2022년 9월 1일에 개봉된 권순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은 보수기독교 진영의 시각을 보여준다. 남로당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선거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을 막음으로써 북한과 공산통일을 이루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경찰, 우익인사, 선거위원,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을 약탈하고 학살과 방화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를 기획한 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 4.3사건을 “경찰과 군인들에 의한 국가폭력이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시 “남로당을 그대로 두고, 제주도에 이어 남한 땅이 공산화되도록 놔두는 게 맞았느냐”고 반문한다. 이 영화는 남로당에 의해 순교한 이종도(1892-1948) 목사의 생애를 부각하며 좌편향적인 시각과 거리를 둔다.²⁾

1948년 6월 18일에 순회 목회를 하던 중 이도종 목사는 좌익세력들에 의해 납치되어 생매장을 당해 순교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김재동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주도 출신 최초 목사 이도종>은 2021년 10월에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청년시절 이도종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군자금모집 활동이 발각되어 6개월 동안 고문을

1) 서중석, 「역사 앞에 선 제주4.3」, 『제주 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제주4.3평화재단, 2017), 57.

2) 이대웅, “제주 4.3 사건 진실 다룬 다큐멘터리 개봉,” 『크리스천투데이』, 2022. 9. 16.

당한 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건국과 민주주의” 등 반공강연을 하던 이도종은 순회목회를 가다가 실종되었고 1년 뒤에 범인이 잡혀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던 것이다.³⁾

본 발표는 1948년 일어난 4.3사건을 중심으로 분쟁과 종교의 관계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만 5천~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종교의 대응도 살펴볼 것이다.

2. 제주 4.3사건에 대한 엇갈린 기억: 무장폭동인가? 무장봉기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6월 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3월 28일에 제주4.3평화기념관이 개관하였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 제2조 1항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3년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진상보고서가 통과되었다.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최초의 정부보고서가 채택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2005년 1월 27일 노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하는 모범”으로 평가하며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4.3을 국가추념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반성하고 추모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확정했다.⁴⁾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해 열린 추념 행사에 불참한 점에서 드러나듯이, 4.3해결의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9년은 잃어버린 불통의 암흑기였다.⁵⁾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왜곡 사례들도 있었다. 1990년과 2000년에 발간된 『제주경찰사』에는 4.3사망자 숫자를 “9,345명”으로 축소하고 군인에 학살된 북촌사건을 공비에 의한 것처럼 가해자를 바꾸는 명백한 왜곡이 발견되어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4년 교육부는 “제주 4.3폭동 시 폭도”가 불렀던 적기가(赤旗歌) 확산차단 공문을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보수 인사들의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적 도전도 했는데, 이선교 목사는 2004년 4.3진상조사보고서 과정과 대통령 사과 표명을 비판하며 보고서의 왜곡과 불법성을

3) 이대웅, “다큐멘터리 ‘제주도 출신 최초 목사 이도종’ 공개,” 『크리스천투데이』, 2021. 10. 29.

4) 서중석, 「역사 앞에 선 제주4.3」, 70-77.

5) 김성진, “윤정부, ‘4.4완전해결’ 길 가려면...,” 『제주의 소리』, 2022. 7. 27.

조사하고 대통령 사과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8월 17일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하였다. 또한 2004년 국방부의 『6.25전쟁사』에서 제주4.3을 “무장폭동”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4.3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를 무시하면서 기존의 폭동론과 토벌의 정당성을 답습하였다. 4.4 관련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여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었다.⁶⁾

“제주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이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다시 미군정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토벌 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하여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하였다.”⁷⁾

서중석은 제주4.3의 성격을 무장봉기, 항쟁적인 면, 제노사이드 그리고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첫째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봉화신호로 시작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는 경찰,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독립촉성국민회를 습격하였고 그 유혈사태는 1954년 9월까지 이어졌다. 해방 후 경찰과 극우 청년단체의 탄압과 횡포가 봉기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되었는데, 1947년 3.1기념 제주도대회 직후에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3월 10일 관민총파업이 일어났다. 이에 육지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어 1948년 4.3 직전까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200여 명을 비롯한 2천 500여 명이 검속되었다. 제주4.3봉기에는 남한의 단독선거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남로당의 과격 노선도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당의 무장대는 미군정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통일독립과 민족의 완전해방이라는 민족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였다.⁸⁾

둘째로,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남로당 무장대에 대해 민중의 태도는 적대적이기보다는 공감적이었다. 당시 친일경찰의 횡포와 미군정의 경제란과 식량난 및 실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정과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단선 단정 반대운동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정면 남로당 조직부장이었던 22세의 김달삼은 “민족 자주독립을 해야 할 때 악질 친일파들이 미제의 주구가 되어 압정을 가하고 있고, 만주나 이북에서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이 월남해 반공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부정부패와 서북청년단의 약탈을 비판하였다. 즉, 제주4.3사건을 “육지인들의 압제와 횡포, 방화, 학살에 대한 섬사람들의 분노와 울분, 절망”의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4.3이후 강매를 거부한 사람들을 총살했다. 한편, 군경은 300여 마을을

6) 양조훈, 「진상조사보고서 왜곡 사건」, 『제주 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제주4.3평화재단, 2017), 661-674.

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수정판, 2004, 450.

8) 서중석, 「역사 앞에 선 제주4.3」, 59-63.

태웠고 남녀노소를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그 가운데 무고한 주민들은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생사에 기로에 서 있었다.⁹⁾

셋째로, 제주4.3사건은 “광기어린 주민 집단학살”이었다. 인명피해는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2011년 1월까지 신고된 인원이 총 1만 4천 여명이다. 2007년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확인한 피해자 인원은 1만 3천 564명으로 여자가 21.2%로 나타났다. 제주도 163개의 마을 가운데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4개로 거의 30%육박했다. 가해자별로는 토벌대의 희생자가 84.4%,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2.3%, 기타 3.3%로 나타났다.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사건이 제주도의 초토화작전에 영향을 미쳤다. 고립된 섬에서 해안과 언론을 봉쇄한 후 군경에 의한 대학살이 자행된 배경에는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던 극우 친일세력의 단정운동세력에 대한 반감, 김구와 김규식의 통일독립운동에 대한 민족의 성원 등이 있었다. 실정 가운데 있었던 미군은 서북청년단의 테러를 방관하였다. 이러한 방임의 자세에는 “사상에 문제가 있는 제주도민 전부를 격리시키고 대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보내 제주도민으로 만들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도 함께 작용했다.¹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제74주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하여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말하며 4.3 명예회복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였다.¹¹⁾ 7월 20일 4.3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4.3중앙위원회 회의를 발족 22년만에 최초로 제주에서 소집하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위원들이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를 처음으로 실시했다.¹²⁾

3. 미군정의 공인교적 종교정책과 종교탄압

미군정 당시 종교계에서는 우익을 선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좌익 세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대체로 천주교와 대종교는 우익의 성향을, 개신교, 불교, 천도교, 유교는 좌우익의 성격을 동시에

9) 서중석, 「역사 앞에 선 제주4.3」, 63-66.

10) 서중석, 「역사 앞에 선 제주4.3」, 67-70.

11) 이승록, “약속지킨 윤석열 당선인 “제주4.3 아픔 치유는 대한민국의 몫,” 『제주의 소리』, 2022. 4. 3.

12) 김성진, “윤정부, ‘4.4완전해결’ 길 가려면...,” 『제주의 소리』, 2022. 7. 27.

보였다. 천주교는 가장 철저한 반공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북한에 거주하던 천주교인들과 개인 교인들은 미군정부부터 6.25전쟁까지 대거 남하하여 남한의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기독교는 거의 소멸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로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¹³⁾ 민중과 함께 성장한 개신교는 해방 이후 빠르게 정치세력과 결합했다. 1946년 3월 8일 북한(북조선)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친일파와 개신교인들의 남한 이주를 촉발했고,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를 통해 미 군정청과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경찰에 편입시켰다. 미국 내 매카시즘을 정권의 정체성으로 설정한 이승만은 서북청년회의 지지를 얻으며 반공주의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¹⁴⁾

해방 이후에 벌어진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불교계는 서북청년단의 만행을 지적하면서 제주 불교계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던 종교탄압적 범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서북청년단을 “학살 전위대”로 간주하며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며 반공 투사를 자처한 한반도 서북지역 지주의 자제들”의 사상적 지도자를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를 서북청년단의 집결지로 지목하였다.¹⁵⁾ 1948년 5월 11일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이승만 정부와 한 목사가 “공산주의를 괴물로 치부하고, 그들의 괴멸이 곧 종교적 축복이라는 믿음을 서북청년단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에 의해 고향을 떠났던 서북청년회의 “복수심은 비뚤어진 신앙심과 결부되면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는 해석이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연구조사실장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을 봉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학살을 하는데 이 정점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가 아는 조병옥이나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의 지도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제주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는 제주불교방송에 출연해 개신교인으로서 공신적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였다.¹⁶⁾

변상욱 기자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익 기독교청년들이 중심이 된 서북청년단은 돌격대 역할을 하였는데, 미군정에서 선교사들이 자문역을 담당하면서 서북청년단원이 미군에 채용되고 원조물자의 배분을 독점하자, 그는 서울 출신 이승만은 직속에 대동청년단을 만들어 서북청년단을 견제했다. 두 우익 청년단은 이승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제주 민중을 희생양으로 한 패권 다툼을 벌인 셈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한 서울과 평양의 우익청년 세력은 국민방위군, 보도연맹, 6.25를 걸쳐서 친일세력과 결합하여 군경을 장악하고, 민간에선 친미 기독교 우익세력이 정치, 언론,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오늘 수구 기독교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진단하였다.¹⁷⁾

13)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2(1993), 17-26.

14) 장계황, “한기총을 고발한다,” 『시사Times』, 2019. 12. 31.

15) 정진경, 「한경진 목사와 선교」, 조은식 편, 『한경진 목사의 신앙유산』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7), 99-100. 한경진 목사는 서북청년회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고 개신교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16) 이병철, “제주4.3사건 서북청년단 만행은 종교탄압 성격,” 『BBS NEWS』, 2022. 4. 14.

2018년 4.3항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협의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및 NCCRK 제주 4.3 유족들과 국민에게 “학살에 동참했던 과거를 사죄한 바”가 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1월 31일 서울 YMCA에서 출범한 단체로서 원래는 서북청년회인데 대중에게는 서북청년단으로 알려졌고, 해방 후 좌익 세력을 암살하고 테러를 자행하였고, 4.3항쟁에서는 토벌군에 참여하여 수많은 민간이 학살하는데 주범이 되었다. 1945년 세워진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¹⁸⁾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이승만과 미군의 후원을 받아서 서북청년단은 군경으로 편입되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것이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피해는 미미했지만, 불교는 80%의 피해를 보게 된 이유를 “종교에 의한 종교탄압의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공산주의를 막으려던 한경직 목사는 1947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¹⁹⁾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벨 자 누구입니까.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정훈 목사에게 따르면,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고 월남한 서북청년들은 한경직 목사의 반공 설교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악마화하고 공산주의자를 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제주4.3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적들을 토벌하고 궤멸하는 일을 “종교적 축복”으로 간주했다. 서북청년단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십자가와 성경은 생명을 보호하는 부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²⁰⁾

양정심에 따르면, 미국 유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신앙은 반공주의를 강화했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²¹⁾ 문명개화의 논리를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비기독교인을 “야만적”으로 간주하고 개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4.3사건의 경우에 불교의 사찰이 주로 산에

17) 이지수, “4.3 사건 진압한 서북청년단 4.3사건에서 “돌격대 노릇”, 『베리타스』, 2018. 4. 3.

18) 이병철, “이정훈 목사 “4.3당시 집안의 십자가와 성경은 부적 역할...서북청년단, 반공정신의 맹목성,” 『BBS NEW S』, 2022. 3. 31.

19) 이병철, “이정훈 목사.”

20) 이병철, “이정훈 목사.”

21) 이종성, 『한국교회와 신학에 미친 영향』, 조은식 편, 『한경직 목사의 신앙유산』 (서울: 송실대학교출판부, 2007), 28-29.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점도 있지만, 공산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던 “빨갱이 섬”에 있는 불교사찰이라 더 피해가 컸다고 설명한다.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났던 황해도와 평양도 출신의 서북청년들이 가졌던 분노의 마음은 제주도민을 향한 폭력으로 전이되었다.²²⁾

결국, 제주 4.3사건은 “한국전쟁의 축소판”이며 우익 토벌대로 활동하던 서북청년단이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비호 아래 테러와 횡포를 저질러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해석이다. 기독교 보수우익 세력은 “해방, 건국, 공산정권과의 전쟁 과정을 기독교신앙과 연결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챙기시니 이렇게 이뤄졌다는 선민주의를 교리처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²³⁾ 당시 4.3사건과 관련된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다음과 같이 증언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 죽이는 게 싱거웠는지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였다. 밭아 죽이고 물에 빠트려 죽였다. 목을 잘라 죽이고 허리도 잘라 죽였다. 폭탄을 터트려 죽이고 차바퀴로 치여 죽였다. 독약을 먹여 죽이고 껌데기를 벗겨 죽였다. 굶겨 죽이고 절벽에서 떨어트려 죽였다. 구덩이를 파게 하고 생매장도 했다.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고 나무에 묶어 놓고 죽였다.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굴 입구에 연기를 피워 굴에 피신한 주민들을 질식사시킨 경우도 흔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뺨을 때리도록 강요했다. 그러다 히히덕거리며 총으로 쏘 죽였다. 여자를 강간한 뒤 죽이는 건 부지기수였다. 여자의 성기에 총구를 꽂기도 했다.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며 사살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신으로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킬킬거리며 총으로 난사했다.”²⁴⁾

심지어 집단학살의 과정에서 목회자가 선별절차에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일부 진보개신교 진영의 사과가 있을 뿐, 보수개신교의 사죄와 반성은 없다.²⁵⁾

4. 영화를 통한 증언과 치유 그리고 추모

제주4.3에 관한 고통의 기억은 영화를 통해서도 증언되었다. 김동만은 1993년에 첫 4.3다

22) 이병철, “양점심 실장 “서북청년단의 북한정권에 분노, 제주도민에 악행으로 화풀이,” 『BBS NEWS』, 2022. 4. 12.

23) 민일성, “변상욱 “제주4.3 서북청년단, 선교사 줄타고 미군정에 채용,” 『GO발뉴스』, 2018. 4. 3.

24) 임혜지, “학살, 고문, 검탈... 서북청년단 만행은 ‘신앙’이 받쳐줬다,” 『천지일보』, 2022. 4. 1.

25) 임혜지, 「학살, 고문, 검탈... 서북청년단 만행은 ‘신앙’이 받쳐줬다.」.

큐멘터리 영화 <다랑쉬의 슬픈 노래>를 제작하여 다랑쉬굴에 피해있던 제주도민들에 대한 토벌대의 학살을 영상화하였다. 이어 1995년에 영화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1997년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동만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성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트(빨갱이 사냥, Red Hunt)>가 1997년 9월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1947년 3월 1일에 시작된 이 학살사건은 6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사망자가 최소 3만에서 8만에 이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자막이 노인의 얼굴에 비치며 시작된다. 해방부터 1992년에 유골이 발굴된 다랑쉬굴 사건을 다루며 4.3사건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를 피해자 증언과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석이 구속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98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7년 12월에 서준석에게 인권상을, 1998년에 미국인권단체는 고난 받는 작가상을 수여했다.²⁶⁾ 영화를 통한 4.3의 기억과 치유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13년에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지슬은 닫히고 갇힌 섬 속,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했던 작은 점(點)들의 이야기다. 거칠었던 삶이 한 점(點)으로 찍히고, 점들의 사연을 모아 이야기 선(線)을 만들었다. 그 선들이 얽히고 설켜 아프고 쓰린 역사의 장면(場面)이 되었고, 그 면(面) 그대로 영화 필름에 옮긴 것이 ‘지슬’이다.”²⁷⁾

2013년 3월에 오명 감독의 영화 <지슬>(Ji Seul)이 개봉되었다.²⁸⁾ 지슬은 감자의 제주어로, 영화에서 감자는 피신한 가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한다. 첫 장면은 제기들이 엮어져 있고 두 남성이 죽은 여성을 뒤에 두고 과일을 잘라 먹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948년 11월 미군과 한국정부군은 소개령을 선포하는데, “섬 해안선 5km 밖인 중간산 지역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과 함께 ‘초토화작전’이 시작되었다. 산의 굴과 구멍에 숨어 있는 주민들은 초토화작전의 소식을 듣는다. 피신 와중에 한 가족의 노인은 몸이 불편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감자를 쏜다. 추운 겨울에 군은인 마을을 점령하였고, 주민은 마을을 떠나 동굴에 함께 살고 있다. 이 영화는 제주4.3사건의 망자들을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리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네 가지의 제사 과정으로 표현한다.

26) 김종민, 「4.3의 수난시대」, 『제주 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제주4.3평화재단, 2017), 894-901.

27) 「뜨거운 감자」, 『문학나무』 2013 가을호.

28) 영화 <지슬>은 “끝나지 않은 세월 II”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2005년 김경률 감독(1965-2005)의 장편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의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첫째, 신위(神位)는 “영혼을 모셔 앉힌다”는 뜻이다. 영화는 “폭도”를 토벌하는 군인과 산에 피신한 주민의 상황을 교차로 보여준다. 김 상사는 추운 겨울 “빨갱이”를 한 명도 잡지 못해 박 일병을 벌거벗겨 벌을 주는 백 상병을 나무라지만, 상병은 일병에게 물을 뿌린다. 주민들은 밤낮으로 피신하여 동굴에 숨는다. 토벌대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군인의 고민이 나타난다. 주정길은 상사의 식사를 챙기고 부하들은 돼지를 통째로 삶아 먹는다. 동굴에 모여서 지내는 피난민의 모습은 순박하고 애잔하다. 심각한 순간에도 원식이 삼촌은 마을에 두고 온 돼지를 걱정하고, 순덕 엄마는 준비한 감자를 주민들과 나누어 먹으며, 순덕과 만철에 관한 연애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신묘(神廟)는 “영혼이 머무는 곳”을 뜻한다. 총을 든 군인은 별관에서 짐보따리를 든 소녀 순덕에게 총을 겨누지만 결국 쏠지 못하는 사이에 순덕은 도망친다. 주민들은 감자를 나누어 먹고, 원식이 삼촌은 마을에 내려가 돼지 밥을 주고 온다고 한다. 상사는 끓는 물에 목욕하고, 주민은 산 곳곳으로 도망친다. 청년들은 순덕을 끌고 가는 군인을 쫓아간다. 동수가 백상병에게 박상덕 일병의 밥을 챙겨도 되냐고 묻자 “폭도”나 잡으라며 폭행한다. “저 여자도 폭도입니까?”라는 일병의 물음에 상사는 “빨갱이”라고 답하면서 순덕을 강간하고 정길은 그 옆에서 물을 건넨다. 철모를 쓰고 벌을 받는 20세 청년들은 여자를 쏠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답한다. 군인들은 폭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령 때문에 참여한다고 말하며, 동수에게 탈영을 제안한 박상덕 일병은 “폭도”의 총에 맞아 죽는다. 마을까지 내려온 청년들과 군인들 사이에 총격이 시작되고 상병은 총을 맞아 죽고, 만철은 잡혀있던 순덕의 고통을 인지하고 죽인다. 이후 군인들은 마을을 태우며 민간인들을 살육한다.

셋째, 음복(飮福)은 “영혼(귀신)이 남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뜻한다. 주민들은 군인을 마주치자 구덩이에 숨지만, 상표는 “말다리”를 사랑하며 가족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동굴에 극적으로 피한 가족들은 군인을 돌본다. 군인을 죽이라는 만철에게 순덕의 행방을 묻지만, 그는 모른 척한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살피러 마을로 간 원식이 삼촌을 걱정하며 한라산으로 가려 한다.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주민들의 생존 이야기는 계속된다. 집에 모친을 두고 와 걱정되어 무동은 마을로 내려가지만, “빨갱이”에게 어머니를 잃은 군인은 이미 모친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다. 노인은 감자를 손에 쥐고 죽는데, 불에 타버린 집에 돌아온 무동은 모친의 시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절을 한다. 모친의 시신 옆에서 불에 탄 감자를 발견한 무동은 굴에서 나와 밤에 바람을 쐬다. 돌아온 무동은 감자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진 않는다.

넷째, 소지(燒紙)는 “신위를 태우며 드리는 염원”을 뜻하는데, 군인들은 상표를 앞세워 동굴

에 숨어 있는 주민들을 찾아서 학살을 자행한다. 총을 앞세운 군인의 토벌과 매운 고추를 태우는 주민의 저항이 대비를 이루며,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동굴에서 “빨갱이” 살육은 진행된다. “죽어 쥐새끼들아”라고 외치며 군인은 연기가 자욱한 동굴에 난사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동굴 출구로 피신한다. 한편, 정길은 상사를 숲에 가두어 삶아 죽이면서, “이제 그만 죽이세요. 잘가요. 형”이라고 말한다. 총소리와 함께 동굴 안에 아기의 울음만 퍼지고, 신위들이 쓰러져 있는 망자들 옆에서 탄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다음 자막이 올라간다.

“당시 제주 북서부 중간산에 위치한 ‘큰 넓궤’라는 동굴에는 토벌을 피해 온 인근 마을 주민들이 120여 명이 50~60일 동안 숨어지냈던 곳이다. 그러나 결국 토벌대에 발각되어, 보초를 서던 마을 청년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였하지만, 한라산 근처에서 대부분이 붙잡히고 만다. 그들 대부분은 1948년 12월 24일 서귀포시 정방폭포에서 총살되어 바다에 버려졌다. 4.3당시 학살된 제주도민은 3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된 민간인들이 이었다. 대량학살은 미군정(1945~1948)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까지 1년에 가까운 “초토화작전”의 시기에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의 배후에는 미군정과 미군고문관이 있었고,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이 학살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영화는 4.3사건을 금기와 침묵의 영역에서 정의와 증언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영화적 승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 4.3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조사와 탄압이 있었지만, 이제는 종교적 상상력이 곁들여져 고통의 기억을 추모와 위령의 문제와 연관하여 대중과 공유하며 치유와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²⁹⁾

5. 결론: 분쟁의 기억에서 종교의 화해로

종교는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종교들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심지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참혹한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은 여전히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개신교의 반공주의는 제주도민을 “악마화”하여 민간

29) 지영임, 「제주4.3관련 위령의례의 변화와 종교적 의미」, 『종교연구』 48 (2007), 327-357. 4.3위령의례의 변화양상은 “서로 폭력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에 대한 대량살상을 “정당화”하였다. 오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은 기쁨을 잠시 즐길 겨를도 없이 제주도민들은 새로운 악몽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엄청난 피해의 규모는 물론, 사후처리의 부조리한 역사를 보더라도, 제주4.3사건은 종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유와 용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광기에 사로잡힌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비극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고통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폭력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2007년 제주에 올레길 열풍이 불면서, 2012년 6월 제주 기독교 순례길 제1코스를 시작으로 78km 다섯 코스의 기독교순례길이 마련되었다. 순종의 길은 순교의 길, 사명의 길, 화해의 길, 은혜의 길로 확대되었고, 이기봉 선교사와 이도종 목사 및 조남수 목사의 활동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사후 공덕비까지 세워진 조남수 목사는 “화해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좌익과 우익의 갈등으로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자수를 권유하는 강연’을 통하여 주민들의 목숨을 살렸다.³⁰⁾

21세기에 다문화와 다종교의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이웃종교를 “타자”나 “이단”(異端)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이해와 대화를 통한 공존과 상생을 노력해야 한다. 예술, 영화, 관광 등의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주4.3사건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창조적인 (재)해석의 다양한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종교간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종교의 긍정적 기여와 함께, 감추어진 부정적 과오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보다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¹⁾

30) 박창건, “4.3사건과 조남수 목사 공덕비,” 『기독교신문』, 2019. 12. 18.

31) 강성호, 『한국기독교의 흑역사』 (서울: 짓다, 2016); 김경재 외, 『무례한 복음』 (서울: 산책자, 2008)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위인규 (선학UP대학원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한국전쟁 후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 1. 메노나이트 평화 사상
 - 2. 메노나이트의 평화운동
 - 3. 메노나이트 한국 활동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한계
- I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화 실현을 위한 FBO의 역할
 - 1. 전쟁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활동 방향
 - 2. 종전 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사업
- IV. 결론

I. 서론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세계는 평화로운 시대를 꿈꾸며 밀레니엄을 맞이하였다. 이후 크고 작은 내전이나 분쟁은 있었지만, 국가 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평화는 유지되고 있었다.¹⁾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침공하면서 이러한 평화는 깨어졌다. 7개월이 지

1) 물론 2000년대에서도 내전으로 인한 분쟁은 제3세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다. 에티오피아는 내전으로 피란민 200만 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폭력과 기아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예멘에서도 2014년부터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시리아에서도 12년째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김연하, "21세기에 전쟁이 왜 일어나고요?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만[글로벌체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114FIA> (검색일 2022.9.8.).

난 현재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던 러시아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러시아가 전쟁으로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한국 면적(10만km²)보다 넓은 12만km²(전체 22%)에 이른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은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전쟁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5,587명, 부상자는 7,890명으로 파악되었고(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8월 21일), 우크라이나 군 전사자는 9천여 명(우크라이나 정부, 8월 22일)에 러시아군 전사자는 1만 5천여 명(미 CIA, 7월20일)에 이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택은 물론 교육·의료·사회복지 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경제 인프라 피해를 복구하는데만 전문가들은 1천85억 달러(약 242조 원)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전쟁의 참상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타국으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인은 무려 1천 115만 명에 이른다(유엔난민기구, 8월 16일). 이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중 타국에 적응하지 못한 476만여 명은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왔다.²⁾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확하게 종전의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끝나게 될 전쟁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남길 것은 분명하다.

전쟁 이후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종교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는 역할에 일차적으로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로운 사회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종교가 개인의 내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³⁾

본 연구는 전쟁 종식 이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교기반 NGO(Faith Based Organization; 이하 FBO)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종교를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창립된 FBO는 선교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회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BO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

2)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 결과(8월2일) 주택은 12만 9천900개가 파괴되었고, 교육 시설 2천217곳, 의료 시설 903곳, 사회복지 시설 89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그 외에도 도로와 교량, 공항 같은 교통인프라는 316억달러(약41조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자동차 10만 5천200대, 농기계 4만 3천700대, 유치원 764곳, 상점 1천991개, 문화 시설 634개가 파괴됐다. 장선이, “[뉴스웍]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SBS 뉴스』, 2022.8.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7485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Jürgen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1999), 5-23.

안하기 위해 여러 FBO 중에서 한국전쟁 이후 평화실현에 집중하였던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이하 MCC)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MCC는 재세례파를 기반으로 하는 FBO로 한국전쟁 이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으며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⁴⁾ 특히 선교보다는 평화실현에 집중하여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재세례파가 탄생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차원을 넘어 종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⁵⁾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의 메노나이트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FBO인 MCC의 한국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전쟁 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역할을 제안할 것이다.

II. 한국전쟁 후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 메노나이트 평화 사상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는 일반적으로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퀘이커(Quakers: Religious Society of Friends)’와 함께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es)’로 불리고 있다. 평화교회는 기독교 사상으로써 평화를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기독교 교회로,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평화주의의 역사는 반전 평화운동의 실제적 주체였던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⁶⁾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는 네덜란드 비트마르섬(Witmarsum)에서 출생한 종교 개혁가 메노 사이먼스(Menno Simons, 1496-1561)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메노 사이먼스는 원래 프리슬랜드 지역의 로마 가톨릭 사제였다가 네덜란드 ‘재세례파’의 온건파 초기 지도자로 선 이후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메노나이트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다.⁷⁾

메노는 전통적인 로마교 교리에 회의를 품게 되는데, 첫째가 화체설(化體說)이었다. 화체설은 성찬(聖餐) 시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교리로 트렌트 공의회(1551년)에서 교의로 선포된 이래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인간이 고안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였

4) 정성환,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한국교회사학회지』 37(2014), 203.

5) 조응태, 「재세례파 형성 및 한국 유입 과정과 신종교적 의의」, 『신종교연구』 30(2014).

6)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44(2016), 209-210.

7) 위키백과, “메노 시몬스,”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2.8.21.).

는데, 메노는 이를 수용하여 ‘화체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 건전한 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는 ‘유아세례’였다. 메노는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자들의 작품과 교부 문서를 숙고하였으나 유아세례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어 결국 ‘유아세례’를 부인하게 된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일생동안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로 반복된 세례는 금지되었지만, 메노는 1537년 ‘재세례’를 받고 로마교를 떠나게 된다.⁸⁾ 이러한 특징으로 이들을 ‘재세례파’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재세례파’ 중에서 급진적 광신주의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독일의 뮌스터(Münster)를 점거(1534~1535)하고 재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폭력적인 재침례파 운동이 일어났으나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진압되며 혁명은 끝나버리고 만다. 이 폭력적인 사건이 메노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오히려 온건하고 평화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적 평화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⁹⁾ 메노는 반전(反戰)뿐만 아니라 대립과 투쟁, 폭력, 그리고 무기 소지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에 대해 완전한 포기가 신약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믿었다.¹⁰⁾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교도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가톨릭의 교회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메노의 평화사상은 칸트의 평화사상보다 3백 년이나 앞서 있었다.

그리고 메노에게는 믿는다는 것(faith) 보다 따른다는 것(following)이 더 중요했으므로, 그의 비폭력 평화사상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에 기초하고 있다.¹¹⁾

메노나이트 비폭력 평화주의 사상은 ‘재세례파’의 첫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 쉘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Schleitheim Confession)¹²⁾의 제6항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항은 칼과 무력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설사 위정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밖에’(outside of the perfection of Christ)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인정하지 않는다.¹³⁾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칼(무기)을 사용할 수 없기에 군 복무마저도 거부한다. 고백서에는 예수님 모범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악한 자들에 대항하여 칼을 사용할 수 없고,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과 다툼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정부의 관리로 선출된다고 해서 그러한

8)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14-215.

9)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15-218.

10) Harold Bender, Harold Bender etc. ed., 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 3 (Scottsdale: Herald Press, 1959), 578.

11)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24.

12) 이 고백서는 당시에 아나뱃티스트운동의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신앙고백서로 인정되고 있다.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고백서의 조항은 1. “세례”, 2. “권징”, 3. “주의 만찬”으로 먼저 교회 멤버십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고, 4. “세상과 교회의 분리”, 5. “리더십”, 그리고 6. “무력”과 7. “맹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복기,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평화운동」, 『基督敎 思想』 702 (대한기독교서회, 2017), 54-55.

13) Cornelius J. Dyck, An Introduction to Mennonite History (Scottsdale: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93), 139

일을 감당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다.¹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철과 동으로 무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해한 제자도 정신이며, 그리스도의 본받음으로 이후 ‘재세례파’(아나뱃티스트)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제자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평화’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 및 구원과는 분리될 수 없는 가치로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의 길을 구체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자도’와 ‘평화’, 그리고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아나뱃티스트의 핵심 가치가 되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⁶⁾

2. 메노나이트의 평화운동

1) 비폭력 평화주의 전통의 계승

‘재세례파’ 전통에서 무력 사용 거부는 병역거부로 이어졌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빼앗는 장면으로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마26:52)는 성경에 근거한 초기 기독교¹⁷⁾의 비전(非戰)과 반전(反戰)의 평화주의 전통을 메노나이트 교회가 제자도 실행의 소중한 가치로 삼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절대 평화주의는 살인을 저지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반전 평화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던 4세기 이후 ‘절대평화주의’는 퇴조하고 그 대신 정당 전쟁론(just war idea)이 대두되면서 ‘상대평화주의’로 대체되었다. 즉,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자 제국의 영토확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피흘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의로운 전쟁’론으로 발전하였고, 폭력사용을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어 비폭력 평화주의의 토대는 상실되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교회는 비폭력 평화주의 이상의 실천으로서 병역거부의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¹⁸⁾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통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뿐만 아니라 평화의 호소문, 성명서 등 평화증거 문서(peace witness documents) 발표, 그리고 평화적 갈등 분쟁해결(conflict resolution)과 화해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평화주의 실천 중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은 편을 가르지 않고 결핍된 자들을 위한 조건 없는 섬김과 봉사이다.¹⁹⁾

14) 박경수, 『칼뱅의 유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46.

15)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27.

16) 김복기,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평화운동」, 58.

17)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사도들이 회중을 이끌었던 시기의 교회를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Apostolic Church)라고 한다.

18)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28-233.

19)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235.

2) 한국전쟁 후 평화활동

MCC는 미국과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단에 의해 1920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이후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제, 개발, 평화’(relief, development and peace)의 FBO이다. MCC는 성경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신 14:29)는 명령에 기초하여 ‘메시아의 평화 선교’(Messianic Peace Mission)라는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MCC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펼치는 구제와 개발, 그리고 평화 구축(peace-building)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전개한 것이었다.²⁰⁾

한국의 활동은 MCC에서 파견된 달라스 보랜(Dallas Voran)과 데일 네벨(Dale Nebel)이 1952년 전쟁으로 황폐화된 비참한 도시를 목도하고 대구에 한국대표부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²¹⁾ 이후 MCC는 1971년까지 20여 년간 대구와 경산을 중심으로 74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했다.²²⁾ 그 활동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물자 구제사업과 직업훈련학교(Mennonite Vocational School), 그리고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과 전쟁 미망인들을 위한 재봉 기술 교육 등이다. 그 외에도 병원 자문 봉사와 지역개발봉사, 그리고 기독교 어린이 위탁 훈련 교육 등의 다양한 구제와 교육,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²³⁾

(1) 간호와 구제 활동

MCC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기관 등 공동체가 붕괴된 사람들 모두에게 간호를 비롯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간호활동은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서울에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고아원으로 이어졌고, 의복, 침구류, 음식 같은 물질 구호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졌다. MCC의 활동은 대구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진행되었고, 피난민들을 위한 간이 집짓기와 우유 배급소 설치, 부엌 편의시설들과 쌀이 제공되었는데, 1953년에는 매일 5천 명에게 우유와 쌀을 제공했고 의복과 침구류는 200가정에 1천 명 이상에게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MCC의 구제 활동은 전쟁 직후 배고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며 실행되었다.²⁴⁾

20) Kim Eel Sahn, and Joanne Voth, Mennonite Central Committee Relief and Educational Missionary Work in Korea (Mennonite Central Committee, 2006), 12-13.

21) MCC가 대구에 한국대표부를 설립한 이유는, 메노나이트 직업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콜스(L.R. Kohls)에 의하면 대구는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압제를 피해 온 많은 전쟁 피난민들의 중심지였고, 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도시였지만, 반면 외국 자원봉사 단체들로부터 가장 외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L.R. Kohls, Report on the Kyong San Vocational School for Orphan Boys, May 1955.

22) 배덕만, “아나뱃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ttps://kac.or.kr/2022/02/14/> (검색일: 2022.8.25.). <https://kackorean.files.wordpress.com/2021/12/kac20eca3bceb8584-ed8c8cec9dbc.pdf>

23) 김복기,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평화운동」, 56-57.

특이한 것은 가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에 등록한 각 가족에게 1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고기와 밀가루를 매월 지원하였으며, 매년 겨울에는 정부 직원의 추천을 받아 2만에서 3만 파운드의 따뜻한 옷과 담요를 시골 가정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MCC는 전쟁으로 붕괴된 가정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가족 단위의 ‘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운영하였다.²⁵⁾ 이는 무작위로 또는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

(2) 직업훈련학교(Mennonite Vocational School)

MCC는 1953년 5월에 경산지역에 전쟁고아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웠다. 9만 5천평(78에이커)에 이르는 땅과 22채의 건물들이었는데, 절반은 한국 지방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이었다. 이 직업학교는 대구, 경상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온 고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한 직업 훈련만을 뛰어넘어 6년 과정의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program)에 상응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세례파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금속작업(metal work), 목공(carpentry), 인쇄(printing), 그리고 농업(agriculture) 등 4개 분야의 훈련을 받았고, 이후 타자(typing)와 전기분야(electronics)가 추가되었다. 직업학교의 후원금은 MCC와 기독교 아동 기금(Christian Children’s Fund)에서 지원되었다.²⁶⁾

1968년 기록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193명으로, 이 중 75명은 경상북도 출신이고 118명은 다른 도의 출신으로, 지난 10년 동안 졸업한 학생은 총 261명이라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전쟁 고아 소년들에게 음식, 거처, 의복과 교육 및 영적 도움의 적절한 조합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일하고, 놀고, 공부하는 분위기의 생활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외된 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²⁷⁾

이 직업학교의 목적은 고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찾아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위탁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삶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감정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²⁸⁾

24)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86-187.

25)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https://sites.google.com/a/kac.or.kr/mcckorea-english/activities/15th-anniversary-brochure>(검색일:2022.9.2.)

26)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87-188.

27)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28) Karl Bartsch, The recommandations on Mennonite Vocational School and Orphanage, July 27, 1965.

(3) 미망인 재봉 뜨개질 교육(Sewing Project)

메노나이트 ‘봉제 사업’은 1954년 8월 MCC가 30명의 가난한 과부를 선발하여 바느질을 교육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망인에게 봉제 교육을 통해 봉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5년부터는 졸업생들이 자립 차원에서 재봉틀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가족에게까지 프로젝트가 확대되었다. ‘한미재봉소’라는 명칭 하에 설립된 이 교육은 옷감과 같은 재료는 메노나이트 중앙재단에서 공급해 주었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고아원 및 영세민들에게 배포되었다. 통계를 보면 1968년까지 총 158명의 과부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²⁹⁾

(4)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Family Child Assistance Program)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도 수용시설의 아동들은 더 늘어만 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해방 직후 1945년에 3,000명이었던 수용시설 아동들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24,945명으로, 그리고 1960년에는 62,697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MCC는 1962년 8월 대구에서 ‘가족 아동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1968년 5월까지 사업이 종료된 가족의 수는 289가족이었고, 도움을 받은 개인의 수는 총 1,820명 이상이었다.³⁰⁾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식을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난에 처한 가정에 물질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업이었다. 즉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가난 때문에 헤어질 위험에 처한 가족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가족과 살면서 유대감과 함께 스스로 선택하고 만드는 삶으로서의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³¹⁾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MCC의 보편적인 ‘가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가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³²⁾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고용 문제 해결에 있었다. 이에 각 가정에 필요한 사업 자본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각 가정에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활비와 식품, 교육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지급과 주거비,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이루어졌다.³³⁾

29)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30)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31)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32) Kim Eel Sahn, and Joanne Voth, Mennonite Central Committee Relief and Educational Missionary Work in Korea, 96.

(5) 평화활동(South East Asia Peace Work Camp)

MCC는 물질적 지원과 교육, 가족과 아동 돌봄 사업 외에도 평화조성(Peace making)을 위한 활동으로 동남아시아 평화 노동 캠프(South East Asia Peace Work Camp)를 1965년부터 개최하였다. 이는 일본과 일본이 점령했던 기독교인들 사이의 화해와 동남아시아의 메노나이트 형제들의 친교와 협동 차원에서, 주최한 나라에 어떤 가치 있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었다.³⁴⁾ 그리고 캠프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평화조성은 무엇인지 깊이 공부하고, 동남아시아 메노나이트 형제들의 미래 협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 캠프에는 타이완과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베트남, 한국, 일본 등 7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 ‘한일 화해위원회’(Korea-Japan Reconciliation committee)가 결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파괴한 수원 제암리교회의 예배당 복구를 위해 3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또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세미나를 농업과 무역 협력,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개발의 주제로 열기도 하였다.³⁵⁾

(6) 기타 사업

MCC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한 재건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으로 1960년 12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방향은, 유능한 농업 지도자를 양성할 기관으로 농민 학원을 경영하고, 상향식의 농업 협동조합을 조직하며, 곡식 중심에서 축산업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³⁶⁾ 아울러 이 사업에서는 농사 방법 개선 차원에서 종자 갱신과 비료 방법 개선, 질병 및 해충 피해 예방 등을 가르쳤다.³⁷⁾

MCC는 또 경북, 경남, 부산 지역에 위치한 보육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기독교 아동복지 교육’(Christian Child Care Training)을 실시하였다. 1963년 3월에 시작된 이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의 개선에 있으며 훈련은 3개월간 강의와 실습, 그리고 각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으로 진행되었다.³⁸⁾

3. 메노나이트 한국 활동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한계

MCC의 구제와 봉사로서의 한국 활동은 한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

33)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34) 1970년 홍콩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운동장이 열악한 학교에 축구장을 만들어 주었다.

35)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93-194.

36)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91-192.

37)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38)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었던 1971년 막을 내리게 된다. 사실 MCC는 1962년 3월 6일부로 한국인을 대표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동안 MCC가 해 온 모든 활동과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해 놓았다. 그리고 그 계획은 1969년 MCC 한국대표부가 한국 정부의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화 되었다. 공문 내용은 1971년 MCC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과 한국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던 ‘메노나이트 직업학교’를 이미 한국인의 재단법인으로 양도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MCC 한국대표부는 1971년 3월 31일부로 한국에서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고 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로 그 활동을 옮기게 된다.³⁹⁾

MCC는 2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 사회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개신교 교단이나 선교단체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⁴⁰⁾ 당시 이미 한국에서 기독교의 다른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MCC는 재세례파의 교회를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비선교적 차원의 활동만 하였던 것이다.⁴¹⁾ MCC의 한국 활동은 메노나이트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온전한 평화사업의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메노나이트 직업학교’가 설립(1954.11)된 지 6개월 뒤, 첫 교장이었던 콜스(L.R. Kohls)가 미국의 한 후원재단에 보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는 그와 그의 아내가 메노나이트 신자가 아님에도 MCC 한국 활동의 중심이었던 직업학교의 교장을 맡았으며, 3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이나 출생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제사업을 펼치는 MCC의 역사 때문임을 밝히면서, 직업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도 메노나이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⁴²⁾ 즉, MCC는 한국의 활동을 통해 교파 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MCC는 ‘선교’와 ‘봉사

39)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95-196.

40) 배덕만, “아나뱃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41) 박용규는 한국전쟁 이후의 교회 숫자의 증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1941년 당시 불과 40개에 지나지 않던 서울 지역 교회는 1958년에 400개로 증가했고, 1941년에 불과 7개에 불과했던 대구 지역의 교회는 1958년에 이르러 170개로 급증했다. 영적 각성과 대대적인 교회재건 사업에 힘입어 전쟁 발발 불과 5년 만인 1955년 현재 장로교 1,200개 교회, 감리교 500개 교회, 성결교 250개 교회 그리고 기타 교파 100개 교회, 합 2,000여 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873-874.

42) 콜스의 보고서 내용 원문. “나의 아내와 나는 메노나이트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댓가 없이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메노나이트 구제 기구와 일하는 것은 그 기구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인종이나 출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기초하여 구제하고 회복시켜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1920년 이후 전쟁, 흉수 그리고 기근을 당한 25개 나라 이상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 학교가 아메리카와 캐나다의 메노나이트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는 선교사 그룹이 아니며, 우리의 소년들에게 ‘메노나이트 교리’(Mennonitism)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과 모범으로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절과 권리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많은 아이들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부모가 아무런 종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R. Kohls, Report on the Kyong San Vocational School for Orphan Boys, May 1955.

활동'을 구분하여 수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교육은 하지만 교과교육은 하지 않았다.⁴³⁾ MCC의 활동은 교파에 국한되지 않고 '초인종,' '초종교적'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MCC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확인한 후에는 MCC가 벌여왔던 모든 사업을 한국에 이관하고 철수하였다. 즉, 한국 법인화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토착화시키는 입장을 취하였다.⁴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MCC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기초하여 한국이라는 공동체 내에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MCC는 단순한 구제 차원의 물자지원으로 끝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가정과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고아와 미망인들에 대한 교육과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재건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정성환은 MCC의 한국 활동은 '평화활동'이었다⁴⁵⁾고 규정하였으며, 함세남은 MCC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한국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⁶⁾ 나아가 조응태는 20여년 간의 한국에서의 MCC 활동을 '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봤다.⁴⁷⁾

이와 같이 MCC의 한국 활동은 현장의 필요한 구제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선교와는 구분하여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토착화 시키는 등 MCC의 한국 활동은 진정한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물자지원을 넘어 금융 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가정의 회복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 등은 MCC의 평화사상에 의한 실천이었으며 '메시아의 평화선교'(Messianic Peace Mission)라는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정책에 기반한 것이었다.

MCC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에 엇갈리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비판적인 평가는 한국 활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재세레파의 사상과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비판이다. 루터는 아나뱃티스트들의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성서 해석을 문제 삼았는데, 특히 공동체 윤리를 위한 규범으로 산상수훈을 삼은 것이 성서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도록 만들었고 세속적인 일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루터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을 배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⁴⁸⁾ 이에

43) 정성환,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202.

44) 함세남, 「메노나이트 사회복지활동이 한국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사회복지지역사연구』 2(2019), 27.

45) 정성환,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199.

46) 함세남, 「메노나이트 사회복지활동이 한국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27.

47) 조응태, 「재세레파 형성 및 한국 유입 과정과 신종교적 의의」, 16.

루터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아나뱃티스트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아나뱃티스트들의 관점은 결국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하는 형태를 취하게 만들었고 과격파의 출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응태는 교회가 국가와 분리에 있어 지나치게 되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결국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⁴⁹⁾ 이러한 예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과 공교육에 대한 거부, 그리고 국가와 분리된 그들만의 자치권을 말한다. 이는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적극적 평화의 구축을 어렵게 한다.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와의 분리가 아닌 국가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화 실현을 위한 FBO의 역할

1. 전쟁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활동 방향

1) 선교가 아닌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

MCC가 한국전쟁에서 펼친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메노나이트 교회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교와 구제 활동의 구분이 없이 동시에 병행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다고 한다면, MCC의 활동은 메노나이트 교회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국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MCC는 구제 활동을 우선하였고, 더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MCC의 활동모습은 전쟁 이후 참혹해진 지역에 평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FBO의 활동에 중요한 방향을 알려준 것이다.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종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제시한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종교들은 하나님을 피조세계를 창조하며 이상하셨던 평화세계 실현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⁵⁰⁾ 심지어 평화가 정착된 세계에서 종교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했고, 그 타락권을 넘어가면 종교는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다.⁵¹⁾

48) Martin Luther,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vol. 21(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23-32. 김주한, 「급진적 종교개혁가들: 기독교평화주의 운동의 역사적 모델로서 아나뱃티스트 운동과 그 사상」, 『신학과 교회』 6(2016), 225 재인용.

49) 조응태, 「재세례파 형성 및 한국 유입 과정과 신종교적 의의」, 9.

50) 김민지 외, 『종교, 평화의 길인가: 문선명과 종교평화』(고양 : 미래문화사, 2016), 187.

이와같이 종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 활동의 목적 또한 선교가 아닌 구제와 봉사, 그리고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 단위를 위한 구제사업

MCC가 펼친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구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MCC의 구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가정의 재화에 보다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년여에 걸쳐 경제적으로 보살펴주는 ‘가정 재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망인들을 대상으로 한 봉제 기술을 교육하고 재봉틀을 살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특히,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수용 시설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진행된 구제사업이었다. 가족의 자립을 위해서 MCC는 금융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선명·한학자 선생도 또한 평화실현에 있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평화의 출발은 개인이지만, 평화의 확장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와 부부, 형제자매, 자녀 간의 4대 사랑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과 평화의 가치가 자신의 인격의 핵심으로 내면화된다. 가정에서 체험한 4대 사랑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해동포주의 또는 인류 한 가족의 이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⁵²⁾ 다시 말해, 평화는 개인으로 시작하여 가정을 거쳐,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진다.⁵³⁾

따라서 전쟁 이후 파괴된 지역에 온전한 평화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함양

MCC는 전쟁 이후 구제활동을 전개할 때 단순히 물자지원에 멈추지 않고 전쟁고아들을 대상으로 정규학교와 같은 직업훈련학교를 세워 사회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였다. 즉, 물고기를 주는 데 멈추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문선명·한학자 선생도 평화는 가난과 기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해결

51)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186권(서울: 성화출판사, 2003), 30.

52) 김민지 외, 『종교, 평화의 길인가: 문선명과 종교평화』, 178-181.

53) 황선조, 『문선명선생의 평화사상』(서울: (주)성화출판사, 2002), 190.

방법으로 ‘기술 평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공동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⁵⁴⁾ 이러한 관점에서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1980년대부터 기술평준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최고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한국과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이전받은 당시 한국의 통일산업은 완성차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생산을 불허하자 ‘기술분할운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생산의 핵심 기술을 타기업에 전수하였다. 아울러 1991년 12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 평화회담을 가졌던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김 주석의 요청으로 남포에 평화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그동안 쌓아왔던 자동차 기술을 모두 전수해 주기도 하였다.⁵⁵⁾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곧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치를 가지기에 절대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문선명·한학자 선생이 과학기술의 평준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평화 세계 건설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FBO의 역할도 또한 주민들이 미래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다.

4) 초인종·초종교적 활동

MCC 한국 활동의 핵심 사업이었던 메노나이트 직업학교의 초대 교장인 콜스는 메노나이트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학교를 운영하며 봉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신자가 아니었으며,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되기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구제와 봉사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인종 또한 가리지 않았다.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이 평화세계 실현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종교의 목적을 실생활에서 신의 뜻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신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그리고 민족과 환경에 따라 적합한 종교를 두어 선의 영역을 넓혀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신의 뜻인 평화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에 있다.⁵⁶⁾ 따라서 종교기반을 가진 NGO일지라도 그 활동은 범종교적이고 초종교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즉, 전쟁이 끝난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봉사와 구호 활동은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와 협력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파괴된 현장의 복구 사업과 구제사업은 초종교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현장에서의 종교적 마찰을 방지하는 평화로운 사업이 될 수 있다. 나아

5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서울: 천원사, 2013), 1148.

55) 과학기술 최강국인 독일의 유수 공작기계 기업인 반도르(Wanderer, 1981년)사와 하일겐슈타트(Heyligenstaect, 1985년)사, 혼스백(Honsberg 1986년)사와 부르세(Bourcer, 1985년)사를 인수하였다. 천치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헌 60주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함께사는 평화세계』(서울: 천원사, 2020), 37.

56)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135권(서울: 성화출판사, 2003), 220.

가 종교적 갈등 방지 차원을 넘어 화해와 화합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면 평화구축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례로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를 비롯한 세계 종교 지도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을 종식하고 초종교적 차원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평화대행진'이 있었다. 2003년 12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반 FBO인 천주평화연합(UPF)⁵⁷⁾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예루살렘의 시가지를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종교 간 화합과 세계평화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예루살렘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의식은 진정한 종교화해와 화합의 장이 되었다. 참가자 모두가 함께한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벗기고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린 것이다. 이는 유대교·기독교·이슬람의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자는 의미의 의식이였다.⁵⁸⁾

아울러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진정한 평화는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대가족의 세계를 만들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색의 인종은 다 같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피부색이나 역사적인 배경이 우열을 가져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본 것이다.⁵⁹⁾ 그런 점에서 가정연합은 세계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종 간 교차 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 이후 FBO의 역할도 또한 종교의 화해와 화합, 그리고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 초인종적, 초종교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2. 종전 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사업

1) 어린이와 미망인을 위한 구제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을 만든 창립자 에글랜타인 켈(Eglantyne Jebb)은 100년 전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렇게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존재는 어린이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여성 또한 피해가 크다. 이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구제사업은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MCC는 한국에서 고아와 미망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MCC의 '가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눈여겨 볼만하다. 대부분 종교는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정단위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따라서 FBO는 가정을 잃은 어린이와 미망인을 위한 구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57) 천주평화연합(UPF)은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창립되어 세계 194개국에 지부를 두고 다양한 국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다.

천주평화연합 한국 홈페이지, <https://upf.or.kr/upf/intro> (검색일: 2022.9.14.).

58)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혼 60주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함께사는 평화세계』, 173.

5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서울: 천원사, 2016), 1431.

2) 희망의 삶을 가능케 하는 교육사업

MCC는 한국에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학교를 운영하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전쟁 이후 내외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교육은 종전 이후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적인 삶을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종전 이후 FBO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적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FBO에게 있어서 교육사업은 주력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의 FBO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력 속에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이끄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사업

한국에서 MCC는 동남아시아 평화 노동 캠프(South East Asia Peace Work Camp)를 개최하여 '한일 화해 위원회(Korea-Japan Reconciliation committee)'를 결성하는 등 평화조성(Peace making)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MCC 활동과 같이 종전 후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의 조성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노력은 먼저, 종교의 화해와 화합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중동지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배후가 되었던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의 화해는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UPF의 '평화대행진'은 효과적 활동이었다.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간 화해와 화합을 위한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종교지도자들의 화해는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쟁 후에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의 대화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유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국가 지도자들 간의 대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좋은 예로 과거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 1990년 4월 모스크바 국제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평화정상회의'를 들 수 있다. 전·현직 국가수반 4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서방세계의 지도자들은 개혁, 개방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정책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⁶⁰⁾

이와 같이 종전 이후 참다운 평화의 실현을 위해 화해와 화합, 그리고 대화와 협력의 노력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60)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혼 60주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참부모님 100년 100史』(서울: 천원사, 2020), 213.

IV. 결론

러시아의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 6개월 넘게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접경지역인 동부 지역과 남부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업고 다시 반격을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동부 하르키우와 동부 이지움까지 진격해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러시아군은 국경 근처까지 퇴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협상을 꺼내들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을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⁶¹⁾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협상은 중단되었고, 이제는 협상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 그 결과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전쟁 양상에 늘어나는 것은 민간인들의 피해이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평화의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구축을 향한 활동들을 전개할 때 역사적 사례는 귀중한 모델이 되어진다. MCC는 한국 전쟁 후 황폐해진 땅에 들어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따뜻한 구제의 손길을 보내고, 나아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평화의 삶으로 안내했다.

이에, 앞서 걸었던 MCC의 평화사업의 발자취를 교훈삼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FBO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방향은 먼저, 선교가 목적이 아닌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 단위의 구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함양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즉,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넷째, 초인종·초종교적 차원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되며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를 구분하는 활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에 따른 사업으로 어린이와 미망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제사업, 전쟁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희망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사업, 종단 간 화해와 화합,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평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61)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자국 영토 약 3000km²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나기천, “우크라 반격 ‘파죽지세’…서울 5배 면적 영토 되찾았다,” 『세계일보』, 2022.09.13.

이 하루 속히 끝나고 평화구축을 향한 위와 같은 노력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평화구축을 위한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FBO들이 먼저 우크라이나의 피해 현황과 함께 현장의 필요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아진 현황들은 종전 후 지원활동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보와 기금에 기반한 사업이 실시되면, 현장의 피해복구와 평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봉사자 모집과 더불어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의 연대와 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발전적인 논의와 여러 FBO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재보다 더 굳건한 평화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민지 외. 『종교, 평화의 길인가: 문선명과 종교평화』. 고양: 미래문화사, 2016.
- 김복기.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평화운동」. 『基督教 思想』 702. 대한기독교서회, 2017.
- 김연하.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이나고요?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만[글로벌체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I14FIA> (검색일 2022.9.8.).
- 김주한. 「급진적 종교개혁가들: 기독교평화주의 운동의 역사적 모델로서 아나뱃티스트 운동과 그 사상」.
『신학과 교회』 6. 2016.
- 나기천. “우크라 반격 ‘파죽지세’…서울 5배 면적 영토 되찾았다.” 『세계일보』. 2022.09.13.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135권. 서울: 성화출판사. 2003.
_____. 『문선명선생말씀선집』 186권. 서울: 성화출판사. 2003.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배덕만. “아나뱃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
<https://kac.or.kr/2022/02/14/> (검색일: 2022.8.2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천원사, 2016.
_____. 『천성경』. 서울: 천원사, 2013.
- 위키백과. “메노 시몬스.”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2.8.21.).
- 이상규.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44. 2016.
- 장선이. “[뉴스톱]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SBS 뉴스』. 2022.8.27.
-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한국교회사학회지』37. 2014.
- 조응태. 「재세례파 형성 및 한국 유입 과정과 신종교적 의의」. 『신종교연구』 30. 2014.
- 천주평화연합 한국본부 홈페이지. <https://upf.or.kr/upf/intro> (검색일: 2022.9.14.).
-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혼 60주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함께사는 평화세계』. 서울: 천원사, 2020.
_____. 『참부모님 100年 100史』. 서울: 천원사, 2020.
- 함세남. 「메노나이트 사회복지활동이 한국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사회복지역사연구』 2. 2019.
- 황선조. 『문선명선생의 평화사상』. 서울: (주)성화출판사, 2002.
- Bartsch, Karl. the recommandations on Mennonite Vocational School and Orphanage. July 27, 1965.
- Bender, Harold. Harold Bender etc. ed. 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 3. Scottsdale: Herald Press, 1959.
- Eel Sahn, Kim, Joanne Voth. Mennonite Central Committee Relief and Educational

- Missionary Work in Korea. Mennonite Central Committee, 2006.
- Kohls, L.R. Report on the Kyong San Vocational School for Orphan Boys. May, 1955.
- MCC Korea. “the MCC Korea 15th Anniversary report book from 1968.”
<https://sites.google.com/a/kac.or.kr/mcckorea-english/activities/15th-anniversary-brochure> (검색일:2022.9.2.).
- Moltmann, Jürge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1999.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vol. 21.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3.

[토론문]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염승준(원광대)

오기성 교수님의 발표문은 북아일랜드의 30년 폭력 분쟁과 ‘분쟁 후(post-conflict)’ 사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 차원에서 분쟁과 평화, 화해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기능으로 ‘갈등과 분열 기능’, ‘평화·화해 기능’ 그리고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다섯 가지—‘공동체로서의 종교’, ‘일련의 가르침으로서의 종교’, ‘영성으로서의 종교’, ‘관례로서의 종교’, ‘담론으로서의 종교’—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트리블 이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종교의 노력”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 밝힌 ‘개념적 틀’ 다섯 가지 범주를 통해 분쟁 후 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해야 할 긍정적 역할에 대해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에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종교의 두 가지 기능은 동일한 하나의 동전의 양면 또는 양날의 검과 같아 보입니다. 근대의 분과학문인 사회과학, 인류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갈통의 ‘문화적 폭력’의 견해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종교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차이’를 차이로 보지 못하고 ‘차별’로 규정하고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교적 가르침의 ‘절대화’로 인해서 “종교는 …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는 갈등 자체의 근원”입니다.

반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긍정적인 입장으로는 “종교가 갈등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평화를 가져오는 동기 또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등이 그러한 다양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외교가 평화나 갈등 관리를 추구하는 데 독점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 “정치외교적 접근 이외에도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종교 의식(다른 문화적 의식과 마찬가지로)은 적개심을 협력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가 동일한 종교적 현상과 ‘문화’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이해하는 방식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발표문의 3장. ‘북아일랜드 트리블 전후 종교의 역할’, 3절. ‘분쟁 해결 및 평화·화해를 위한 노력’에서 ‘174 Trust의 활동’, Youth Link의 활동’, ‘코리 밀라(Corrymeela) 지도자’들이 노력들, ‘영성센터’의 사례. ‘관례로서 종교의 역할’, ‘담론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사례들은 1장 종교의 기능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개념적 틀’에 상응합니다. 이러한 종교의 활동은 매우 ‘감동적’이며 한반도의 분단체제에서의 우리의 종교적 상황에 비춰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겠습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협력의 기능’이 종교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라는 발표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으려면 갈등이나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인류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의 문화적 폭력성과 같은 종교의 ‘갈등과 분열 기능’의 극복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평화와 협력의 기능’으로서의 강력한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이 그 목적이 전도되어 갈등과 분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문 4절. 종교의 평화·화해 형성 기능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의 ‘평화·화해 기능’을 위해 첫째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우산이 아니라 더 큰 우산 속의 두 공동체로 인식’하자는 말씀에 공감은 되지만 ‘더 큰 우산’이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더 큰 우산’은 어떤 우산인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우산이라 할지라도 우산의 안과 밖의 경계가 있는 한 그 우산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계는 여건과 상황이 좋을 때는 단지 ‘차이’ 정도로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악화 될 때 언제든지 ‘차별’과 ‘배제’의 경계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표 2> ‘코리밀라의 평화화해 관련 주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러한 사례는 발표자께서 <표 1> ‘분쟁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하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갈등과 분열 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 및 그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는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 법률, 행정의 영역에 맡겨 둔 채, 종교가 개인의 문제에만 천착한다면, ‘평화·화해의 기능’이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교육 불평등의 상황을 ‘세습 중산층 사회’로 규정할 만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사회학의 통계지수였던 ‘개천에서 용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과 학벌이 예외없이 세습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혐오와 증오 등의 감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의 화해평등의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치의 영역을 종교적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 지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종교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역시 “어떤 분열적인 행동이 행위자들의 영적 경험에 의해 동기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종교적 관례도 역시 “논쟁과 분열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담론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에서 “담론과 서사가 충돌”할 수 있고 “반대되는 담론의 배후에 있는 다른 세계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해의 문제가 분열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종교의 평화·화해 형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1장에서 밝힌 개념의 틀에 상응해서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해 양날의 검과 같은 두 가지 기능 중에서 ‘평화·화해 기능’을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 평가가 정치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에게 설득력 있기 위해서는 종교의 ‘갈등과 분열 기능’이 극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결론에서 ‘올바른 교육’에 대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올바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하신 논문 “분쟁(Trouble) 이후 북아일랜드의 교육적 노력-통일 교육에 주는 함의”의 통찰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안연희(선문대학교)

지구촌의 환경권은 인류가 인종과 피부색, 성별, 종교, 문화적 차이와 장벽뿐 아니라 국경의 장벽을 넘어 보편적 인류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염원을 키우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분쟁, 테러가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러났듯이 언제든지 대규모 폭력과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평화와 화해의 여정은 지난한 인류의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러블(Troubles)로 불리는 심각한 폭력 분쟁의 시기를 겪은 후 종교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개신교계 통합주의적 왕정파와 가톨릭계 민족주의적 공화파로 대립하며 폭력적으로 대치하던 양쪽이 미래세대를 위해 휴전에 합의한 ‘성금요일협정’ 혹은 ‘벨파스트 협정’이라는 포용적 평화회담체결을 이루고 지금까지 평화와 화해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북아일랜드 평화 노력과 종교의 역할을 연구하여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지금도 전쟁과 분단에서 비롯된 상흔과 갈등의 골을 살아가고 있으며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참조하고 경청할만한 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종교인으로 종교학 연구자이며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한국평화종교학회에 참여하면서 종교와 평화의 복합적이고 양면적 관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에는 종교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위해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역할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만드는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의 평화교육과 평화를 위한 여정들을 일반적 관점과 특수한 사례들을 균형있게 오가면서 오교수님께서 그간 연구해 오신 관점과 방향, 그리고 북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이번 발표를 통해 큰 자극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갈등의 주장처럼 종교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기 때문에, 역으로 종교가 적극적 평화와 평화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논문이 다른 복합적 요소들이 있지만 북아일랜드의 트러블에서

명백히 종교가 대립과 갈등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과 대립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외교적 노력의 한계점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아일랜드의 평화여정에서 화해와 평화를 촉진한 종교의 역할에 에큐메니칼 종교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은 종교와 평화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논평자로서 논문을 통해 이론과 현실적 적용 양면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논문의 전반적 주제의식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 발표가 더 생산적인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을 통합하고 결속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러한 통합적 기능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정체성의 가진 집단의 갈등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통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했던 역할도 그런 다른 정체성이 갈등의 경계선을 만들고 강화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은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경계선이 아니라 공유된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아일랜드 에큐메니칼운동이 교파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같은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에서 갈라진 가톨릭과 개신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한국과 같은 더 다양한 다종교상황에 적용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적 제도종교들과 신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종교가 더 큰 공유된 종교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의 다종교상황에 시사점을 주는 북아일랜드의 다종교적 화해와 대화 사례가 있는지요?

둘째, 논문은 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긍정적 징후로 에큐메니칼 종교공동체의 존재와 통합교육과 공유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에 기반을 둔 구성원의 공존과 화해추구의 노력이 병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화해를 위한 노력과 평화교육적 노력이 어떤 접점을 가지는 지 궁금합니다. 종교기반 교육이 종교적 요인에 의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만을 하지 않고 에큐메니칼 공동체 안에서 종교간 화해를 위한 노력에 기여할 사례가 있는지요?

셋째, 개신교계의 선민신학을 대표하며 통합주의의 신학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개신교 강경파 이안 페이즐리가 가톨릭의 게리 아담스와 협정과정을 거쳐 씨닝 데일협정에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평화협정으로의 길을 트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도 프레이저와 프리들리의 종교의 다섯 가지 차원과 기능-공동체, 가르침, 영성, 실천, 담론을 이용하여 각각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평화와 화해의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북아일랜드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신 것이 흥미롭고 생산적인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6쪽에서 관례로서의 종교와 담론으로서의 종교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진다면 더 의미있는 분석과 제안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종교를 이해할 때 교리와 같은 신념체계, 영성과 같은 내면의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천과 행위의 차원이고, 종교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강화에도 실천과 행위의 차원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담론으로서의 기능도 종교언어의 실천적이고 수행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차원과 연결됩니다. 그 점에서 종교적 의례나 실천이 어떻게 갈등관리, 화해와 평화문화의 조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지구촌 사회에서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동적 종교적 담론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북아일랜드의 경우나 다른 분쟁지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발표를 논평자로 먼저 읽고 종교를 통해 적개심과 미움이 아니라 협력과 사랑,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제주 4·3사건과 분쟁 그리고 종교」에 대한 斷想

도현섭(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관광, 휴양, 안식, 평화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섬으로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한때 제주도를 생각하며 고통, 슬픔, 설움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연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옛날 제주도는 물에서 가장 먼 곳으로 유배의 섬이었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수탈과 고통의 섬이었으며, 해방 이후 제주4·3의 시기에는 폭력과 슬픔의 섬이었다. 불행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까지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행한 과거로 인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제주 4·3사건’으로 불리는 70여 년 전의 일은 적잖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와 같이 제주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제주4·3의 비극에 주목하고 당시에 종교가 이를 어떻게 대했으며, 오늘날 종교는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광풍이 지나간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둘로 나뉘지게 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정치가 온전치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종교 또한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신음을 더욱 가중시켰던 과오의 시기가 있었음을 제주4·3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었으며, 한편으로 그 이후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다가서고자 했는가를 진술하였다.

당시 이땅의 정치와 종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과정 내지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제주 사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들의 의중을 살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으나, 분단 이후의 남북 이데올로기 싸움과 정권에 집착하여 이를 위해 제주 사람과 그들의 삶을 수단으로 삼고 말았다. 이것이 7년의 비극을 제주도에 남긴 것이다. 종교는 제주 사람의 피폐한 삶을 위로하

고 그들에게 일상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해야 했으나, 이념에 눈이 멀어 사랑과 위로가 아닌 억압과 폭력으로 대하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특히 분쟁의 해소가 아닌 분쟁의 원인 내지는 증폭의 주체가 된 종교가 어떻게 과거의 행위를 올바르게 반성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물음과 그에 대한 사례는 제주4·3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가 정치를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통찰을 경청하고 싶다.

평화의 섬 제주가 간직한 슬픈 역사에 대한 환기를 제공해준 저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제주4·3이 이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기억될 수 있는 때 도래하기를 소망한다.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새기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¹⁾

1)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 설명판의 문구.

[토론문]

‘제주 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에 관한 논평

강화명(선문대학교)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인 동시에 세계평화 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비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평화의 섬이기도 합니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로 미국, 일본, 중국 등 12개국의 총 20명에 이르는 세계 정상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갈등 해소 및 평화구축을 논의,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삼무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 발전에 이바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화합과 인권의 상징으로, 평화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 섬 특유의 비극적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해방의 공간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 만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은 이데올로기 갈등과 경계 짓기가 만들어 낸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반작용으로 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안신 교수님은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둘러싼 상반된 기억과 해석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나아가 종교는 현대사의 비극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2장에서 제주 4.3사건을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불순한 공산세력들의 ‘무장폭동’,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보는 시각과 민중 항쟁론의 입장에서 외부로부터의 외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방어적 평화투쟁’, ‘정의로운 저항’, ‘제주도의 항쟁’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설명하며, 4.3의 진상을 둘러싼 엇갈린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3장에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을 한경직 목사, 서북청년단 등 주로 개신교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개신교의 강한 반공주의가 제주도민을 악마화하여 무차별적 폭행과 참혹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제주 4.3사건의 비극이 영화를 통해 다시금 증언되고, 그 아픔과 상흔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고통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살피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종교가 어떠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뿐 아니라 제주도 전 역사에

서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인식되는 4.3사건을 종교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좋은 논문을 써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문적 진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류의 영성과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종교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평화의 마음을 품도록 돕기도 하지만 무서운 증오와 폭력의 정신을 배양하기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종교는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힘인 동시에 미움과 불평등,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가 현실의 정치세력과 불온한 결탁을 추구할 때, 종교의 비뚤어진 욕망은 생명세계의 평화를 깊이 파괴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은 군경의 보호와 지원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간주해 잔인하게 학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어두운 역사가 있기에 더욱이 종교는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는 화해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개신교는 2018년의 공식사과 이후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제주 4.3사건에 대한 종교계의 인식과 대응은 다양했습니다. 강한 우익이념을 지닌 개신교와 달리 불교는 좌익적 성향, 천도교는 친사회주의나 중도파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천주교도 좌우합작 노선을 지지하다가 단독정부 노선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잔인한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며, 주민의 편에 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당시 천주교 제주 본당을 책임지고 있던 스위니 신부는 이 사태의 원인을 경찰의 폭력과 테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미군정 당국에게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을 당장 중지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선무공작대 참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종교들이 제주 4.3의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도 함께 언급해 주신다면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제주 4.3사건은 종교계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고,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반면 제주불교는 교단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집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1948년 해안선으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인가

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사찰의 경우 자연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학살로 공포에 떠는 주민들이 사찰로 도망갔고 대피해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의 사찰이 토벌대에 의해 전소, 폐허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제주 4.3사건을 ‘종교에 의한 종교의 탄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시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개혁적인 운동을 펼치던 불교계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도적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3의 아픔과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종교간 화해를 기반으로 타종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참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토론문]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황진수(선문대학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과 사를 오가는 긴장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곡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 이후 종교의 역할, 특히 FBO를 중심으로 한 평화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국전쟁 이후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의 구체적 사업을 소개해 줌으로써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혹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FBO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성찰해보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한국전쟁 이후 MCC가 주도한 평화사업을 1) 간호와 구제활동, 2) 직업훈련학교, 3) 미망인 재봉 뜨개질 교육, 4) 가족 아동 지원 프로그램, 5) 평화활동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FBO의 활동 방향으로서 1) 선교가 아닌 구제 및 봉사의 평화구축활동, 2) 가정 단위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사업, 3) 자립 능력 함양, 4) 초인종·초종교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구체적 사업으로 1) 어린이와 미망인을 위한 구제사업, 2) 교육사업, 3) 종교, 정치지도자들 간의 평화사업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논문의 행간을 더욱 이해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 및 의견을 제시하며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MCC의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FBO 활동 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MCC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왜 MCC 활동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FBO 활동의 기준이 될 만큼 가치가 있으며 그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논문의 제목이나 장의 제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3장의 논의는 분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창시자의 사상과 활동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선교가 아닌 평화운동이어야 하는지, 왜 개인이 아닌 가정을 단위로 구제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지, 왜 1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 능력 함양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정연합 창시자의 시각과 활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관점과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가정연합의 관점에서 MCC 활동의 의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제목에서부터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위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선교와 구제사업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는 가운데 FBO는 선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FBO가 ‘종교’를 기반으로 한 NGO라는 정체성을 갖는 한 FBO 활동이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종교적 신념,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FBO가 특정 신앙을 과도하게 드러낼 경우 활동현장에서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FBO가 지속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전 이후 FBO가 종교적, 선교적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평화구축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게 들린다. 한국에서의 메노나이트 활동에서 선교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메노나이트 교회의 ‘교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FBO를 신앙일치형, 신앙중심형, 신앙동반형, 신앙배경형, 신앙-세속파트너십형, 세속형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하는데, 오직 세속형만이 참여자(수혜자)의 종교적 경험 및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는 유형으로 분류된다.¹⁾ 하지만 세속형에 속하는 FBO가 소수이기도 하고 세속형의 활동이 지역의 평화구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종전 이후 FBO활동이 세속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1) Ronald J. Sider and Rolland Heidi, "Typology of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and Educational Organization and Program,"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2004), 112-155. 다음에서 인용. 이대웅, 권기현, 이숙중,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대한 탐색적 연구: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0:3 (2015), 45-46.

3. II. 3.에서 메노나이트 한국 활동의 의미와 특징과 더불어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한계라는 것은 메노나이트 한국 활동의 한계가 아닌, 루터의 재세례파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다. 재세례파의 교회와 국가를 엄격히 분리하려는 태도가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은 병역 거부, 공교육 거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 메노나이트의 한국 활동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루터의 신학적 비판 외에, 메노나이트 한국 활동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한계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귀한 논문을 읽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신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부족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문]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 위인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메노나이트 평화운동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문은 세계적인 분쟁과 갈등,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시기에 의미있는 논문으로 사료됨.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FBO의 역할을 주목하였고 메노나이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교보다는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임.
- 한국전쟁 이후 해외에서 한국재건을 위해 많은 재건단체가 한국에 정착하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FBO로 월드비전(구 선명회)이 있지만 전후복구사업과 평화실현에 집중하였던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의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주고 떠나기, 주고 잊어버리기”라는 관점으로 보임.
- 대부분 선교단체는 복구사업이후 학교와 병원, 교회를 건설하여 향후 지속적인 선교기반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메노나이트는 그 기반을 남기고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 개신교 재세례파의 종교적 가치에서 파생된 평화운동은 “칼과 무력, 위정자의 폭력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밖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비폭력 평화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제세례파가 지향하는 제자도와 평화,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 평화는 무엇인지 추가설명이 요청됨.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활동방향을 선교가 아닌 평화구축으로 볼 경우 피해자의 내적치료에 대한 역할보다 국제기구의 외적복구에 전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의 기능인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역할은 없는지 궁금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정연합 FBO가 전후사업에 동참하여 평화구축을 한 사례가 있는지, 가정연합FBO 활동사례와 매노나이트 FBO활동사례를 비교할 경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세션〉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 강화

발표 1: 정지형(제주연구원)

발표 2: 현치훈(제주국제평화센터)

토론 1: 홍석훈(창원대), 나용우(통일연구원)

토론 2: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리은경(연세대)

제주의 국제교류 특징과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¹⁾

정지형(제주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최근 국제화는 국가를 초월하여 도시·지방에서도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행정제도, 공공서비스, 공공정책 등의 세계적인 수준을 도모하고, 글로컬(global) 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주도의 전통적 외교를 보완하는 도시외교 확산, 기후변화 및 감염병 팬데믹 확산, 자원고갈 등 글로벌 위기의 범지구적 대처, 글로컬 추세의 확대 및 심화로 인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미중 갈등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는 2002년부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지정 및 선정 등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방향성을 보여 왔다. 하지만 교류지역 편중 및 사업 연속성 미흡, 교류대상 및 국가의 확장성 부족,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회의 유치 미흡 등 국제교류협력에 있어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어, 향후 도시외교의 확산과 지방간 경쟁이 심화 될 것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제주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을 통한 국제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한중일의 중심에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도시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거점지역 확보 및 국제적 이해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주제들과의 국제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외교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제시, 국제교류의 질적제고 방안, 국제교류 협력 체계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다변화 및 다자간 도시외교 전략'을 기초로 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음

2. 이론적 고찰

2-1 도시외교 개념

최근 국가 간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방차원까지 세계화가 확산되는 세방화(globalization)²⁾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외교(local diplomacy)³⁾’가 일반화된 용어로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들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해왔다. 김영재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 시대를 출범시킨 한국은 분권화와 함께 도시외교(city diplomacy)의 권한을 자치단체(도시)에 이양하며, 국내 도시들은 자치단체 수준의 해외 교류협력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 이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전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독립적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글로컬 포럼(Glocal Forum)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등이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새로운 역할을 규정하고 전 세계 도시들의 적극적인 도시외교에의 참여와 연대를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지방외교보다는 도시외교라는 용어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⁵⁾ 특히 지구화·복합화·네트워크화·지식정보화 등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성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 또는 도시 단위도 외교 행위자로서의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⁶⁾

2-2 국제교류협력 필요성과 목적

국제교류는 국가 간 다양한 주체(국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등)가 다양한 목적(우호, 협력, 이해증진, 공동이익 추구 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주체 간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⁷⁾ 특히 글로컬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 간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자체들은 기존 체결되어 있던 자매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거점도시로서의 이미지

2)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 국가와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세계화와 지역화의 장점을 찾아 발전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 2000년대 이전 일반적으로 지방외교(local diplomacy)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으나, 이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지방정부의 활동을 도시외교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4) 김영재, 한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8집 4호, p.188

5) 고경민, 장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2집 3호, p. 51

6) 송기돈, 지방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도시외교의 제도화 기반과 특성 연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사례중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30권 제4호(2016 겨울), p. 114

7) 신중호 외,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0, p. 13

제고에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교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교류의 영역과 목적, 수단 등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제교류 유형으로는 자매결연, 경제통상 교류, 학술·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행정·인력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통상교류가 국제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제교류 분야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1〉 국제교류분야 및 항목 예시

교류분야	해당항목 예시	비고
행정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정보교류, 교류10주년기념식 등	
인적교류	공무원(상호)파견, 공무원연수, 청소년 상호방문, 홈스테이, 대학생교류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바둑 및 서예교류전, 미술전시회, 한복패션쇼행사 등	
관광교류	관광물산전, 수학여행, 의료관광유치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 교류, 여학연수, 국제인턴십	
스포츠교류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행정정보관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개최, 농업기술연수, 산업관련 연수, 등	
경제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개최, 국제인턴십, 상공회의소간 교류, 투자설명회, 직항로 개설, 기술이전 협의 등	
민간단체교류	상공회의소간 교류, 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단체간 교류, 대학생 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공원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의료봉사, 성금전달, 원조, 동물기증 등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⁸⁾, 연구자 재정리

2020년 12월 기준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총 84개국, 1,311개 도시와 1,748건의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2개국 347개 도시, 기초자치단체가 71개국 1,016개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매관계는 55개국 677개 도시, 우호관계는 79개국 781개 도시이다. 국제교류 대상지역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크게 아시아가 16개국 1,16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33개국 253건, 북미가 2개국 207건, 남미 13개국 57건, 대양주 2개국 32건, 아프리카 10개국 22건, 중동 8개국 17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의 교류가 668건으로 전체 교류의 38%로 가장

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이 209건으로 약 12%를 차지, 미국이 185건으로 약 1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광역·기초 자치단체 국가별 국제교류 현황

지역	국가			
아시아 (16개국 1160건)	네팔 (2)	대만 (22)	라오스 (4)	말레이시아 (11)
	몽골 (47)	미얀마 (2)	베트남 (79)	인도네시아 (28)
	스리랑카 (2)	인도 (12)	일본(209)	중국 (668)
	캄보디아 (10)	태국 (7)	파키스탄 (1)	필리핀 (56)
유럽 (33개국 253건)	그리스 (5)	네덜란드 (7)	노르웨이 (3)	카자흐스탄 (11)
	독일 (20)	러시아 (59)	루마니아 (2)	몰도바공화국 (1)
	벨기에 (2)	터키 (26)	불가리아 (2)	아제르바이잔 (2)
	스웨덴 (3)	스위스 (2)	스페인 (13)	슬로바키아 (1)
	영국 (7)	에스토니아 (1)	세르비아 (1)	오스트리아 (4)
	체코 (6)	우크라이나 (5)	이탈리아 (17)	우즈베키스탄 (14)
	덴마크 (5)	크로아티아 (1)	핀란드 (2)	벨라루스 공화국 (2)
	포르투갈 (3)	폴란드 (4)	프랑스 (14)	키르기스스탄 (3)
	헝가리 (5)			
	북미 (2개국 207건)	미국 (185)	캐나다 (22)	
남미 (13개국 57건)	멕시코 (17)	베네수엘라 (2)	벨리즈 (1)	브라질 (13)
	수리남 (1)	아르헨티나 (5)	우루과이 (1)	칠레 (5)
	콜롬비아 (4)	파나마 (3)	파라과이 (2)	트리니다드 토바고 (1)
	페루 (2)			
대양주 (2개국 32건)	뉴질랜드 (5)	호주 (27)		
아프리카 (10개국 22건)	케냐 (2)	모잠비크 (1)	베닝 (1)	세이셸공화국 (2)
	에티오피아 (2)	우간다 (1)	짐바브웨 (2)	남아프리카 공화국 (7)
	콩고공화국 (1)	탄자니아 (3)		
중동 (8개국 17건)	모로코 (2)	오만 (1)	알제리 (1)	아랍에미리트연합 (2)
	이라크 (1)	이란 (4)	이스라엘 (3)	이집트 (3)

자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자 재정리. 2021. 4월 기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국제교류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기준 총22,246건의 교류가 진행되었으며,⁹⁾ 이중 행정교류는 10,886건, 인적교류 2,591건, 문화예술교류 3,586건, 관광교류 494건, 청소년 교류 2,600건, 스포츠교류 1,150건, 기술학술교류 1,150건, 경제교류 1,174건, 민간단체교류 1,330건, 상징사업 422건, 기타 754건으로 행정교류가 가장 많은 비중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교류의 경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관련 방역물품 지원 등의 교류가 많았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을 통한 교류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현황 및 특징

3-1 제주특별자치도 교류현황

3-1-1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별 교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1986년 11월 25일 미국 하와이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현재 자매도시 6곳, 우호도시 8곳 등 총 8개국 14개 도시와 친선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매도시 13곳, 우호도시 12곳 등 5개국 25개 도시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교류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자매우호도시 39곳 중 아시아 지역 도시가 79.5%에 해당하는 31개 도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어서 유럽지역 10%(4개 도시), 북미지역 7.7%(3개 도시), 오세아니아지역 2.6%(1개 도시)순이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별 교류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자매·우호도시 39곳 중 중국소재 도시가 43.6%에 해당하는 17개 도시, 일본소재 도시가 25.6%에 해당하는 10개 도시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자매우호도시 현황

구 분	국 가	도 시	
제주특별 자치도	자매도시 (6개국 6개 도시)	미국(1)	하와이주
		인도네시아(1)	발리주
		러시아(1)	사할린주
		중국(1)	하이난성
		포르투갈(1)	마데이라주
		일본(1)	아오모리현
	우호도시 (4개국 8개 도시)	호주(1)	태즈매니아주
		중국(4)	타이페이시(타이완), 다롄시, 상하이시, 헤이룽장성
		일본(2)	시즈오카현, 홋카이도
	실무교류도시 (1개국 3개 도시)	베트남(1)	키엔장성
			중국(3)

구 분	국 가	도 시	
제주시	자매도시 (4개국 6개 도시)	일본(2)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효고현 사다시
		중국(2)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저우시,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미국(1)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시
		프랑스(1)	노르망디주 루앙시
	우호도시 (3개국 7개 도시)	중국(4)	장쑤성 양저우시, 쑤저우시 쿤산시, 저장성 진화시 이우시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일본(2)	오이타현 벳푸시, 도쿄도 아라카와구
		독일(1)	브라우바흐 로렐라이시
서귀포시	자매도시 (3개국 7개 도시)	일본(3)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사가현 가라쓰시,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중국(3)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싱청시, 산둥성 옌타이시 룡커우시, 저장성 항저우시
		미국(1)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우호도시 (2개국 5개 도시)	중국(4)	하이난성 썬야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저장성 진화시 이우시 상하이시 충밍구
		필리핀(1)	팔라완주 프에르토프린세사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2020. 12월 기준

이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하이난성과의 교류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5년 10월 6일 중국 하이난성과 자매결연 체결이후 2015년 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선포식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11월의 경우 하이난성장 일행의 제주방문과 함께 우호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9년 제주-하이난 포럼 개최를 통해 양 지역의 기관매칭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매우호도시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 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17개 국제기구·협의체에 가입 중에 있다.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기구 참여현황

연번	국제기구 및 협의체명	체결일시	담당부서
1	NEAR (동북아자치단체연합)	'96. 9	평화대외협력과
2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04. 1	평화대외협력과
3	APCAD (아시아태평양차별반대도시연합)	'07. 10	평화대외협력과
4	KAS (한-아랍소사이어티)	'08. 5	평화대외협력과
5	APCS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08. 9	평화대외협력과
6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92. 8.	평화대외협력과
7	한태평양공원도시협의체	'12. 6.	평화대외협력과
8	평화 수장 회의	'17. 5	평화대외협력과
9	AFHC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합)	'03. 10	보건건강위생과
10	KUSEC (한미경제협의회)	'08. 1	투자유치과

연번	국제기구 및 협의체명	체결일시	담당부서
11	PATA (아태관광협회)	'85. 2	관광정책과
12	ASTA (미주여행업협회)	'95. 4	관광정책과
13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05. 3	환경정책과
14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08. 3	환경정책과
15	UEA (도시환경협약)	'13. 5	환경정책과
16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	'19. 10	디지털융합과
17	PPCA (탈석탄동맹)	'20.12	환경정책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2020. 12월 기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에 11개소의 해외관광 홍보사무소,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도쿄 등 2개국에 2개소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해 관광과 통상 방면에서 적극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상품의 전시 및 홍보·판매를 위해 제주상품 전시판매장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운영하고 있다.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참여현황

구분	지역		주무부서
해외관광 홍보사무소 (11)	중국 (5)	베이징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상하이	
		선양	
		청두	
		광저우	
	타이완 (1)	타이베이	
	일본(3)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1)	쿠알라룸푸르		
베트남(1)	하노이		
해외통상사무소 (2)	중국(1)	상하이	통상물류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일본(1)	도쿄	

자료: 연구자 재정리

3-1-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전담현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평화대외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16명이다.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평화사업팀, 국제교류팀, 재외도민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사업팀에서는 제주포럼, 세계평화회의실 실천사업,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 국제교류팀에서는 외국도시와의 교류, 국제교류 지원, 국제기구 활동, 국제교류 유관기관 업무를 추진, 재외도민팀의 경우 재외도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해보면 광주 14명 외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또한 제주지역 총 예산의 0.11%로 비교적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3-4〉 지자체별 국제교류 관련 부서 인원규모

(단위: 명)

지역	부서		인원	직위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	중국 통상과	29	과장 1, 본부장 1, 총괄 5, 주무관 15, 공무원 1, 직원 6
		일본구미주 통상과	22	과장 1, 본부장 3, 주무관 13, 총괄 4, 사무관 1
경기도	경제 기획관	-	1	경제기획관 1
		외교 통상과	32	과장 2, 팀장 5, 주무관 23, 전문관 1, 사무관 1
경상남도	기획 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3	실장 1, 담당관 1, 담당 4, 비서관 1, 주무관 16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실	외교통상과	25	과장 1, 팀장 3, 주무관 13, 파견 5, 직원 3
광주시	행정 자치국	자치행정과	14	과장 1, 팀장 4, 주무관 9
대구시	일자리 투자국	국제 통상과	25	과장 1, 팀장 4, 주무관 19, 서기관 1
대전시	기획 조정실	국제 협력담당관	17	담당관 1, 팀장 3, 주무관 13
부산시	성장 전략국	도시외교정책과	27	과장 1, 팀장 4, 주무관 19, 직원 3
서울시	국제 협력관	국제 교류담당관	23	담당관 1, 팀장 4, 주무관 18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16	담당관 1, 팀장 3, 주무관 12
울산시	미래성장 기반국	외교투자통상과	24	과장 1, 사무관 5, 주무관 17, 비서 1
인천시	일자리 경제본부	국제 협력과	28	과장 1, 담당 5, 주무관 20, 파견 1, 공무원 1
전라남도	국제 협력관	-	27	국제협력관 1, 팀장 5, 주무관 14, 공무원 1, 소장 6
전라북도	대외 협력국	국제 협력과	20	과장 1, 팀장 3, 주무관 16
충청남도	경제실	국제 통상과	20	실장 1, 과장 1, 팀장 4, 주무관 14,
충청북도	경제 통상국	국제 통상과	27	과장 1, 팀장 4, 주무관 17, 경력관 2, 전문관 1, 직원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평화대외 협력과	16	과장 1, 팀장 3, 주무관 12

자료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주: 국제관계대사는 미포함

〈표 3-5〉 각 지역 지자체 국제교류 예산

(단위: 천원, %)

지역	부서		부서예산	지역총예산	비중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	중국 통상과	11,856,970	6,681,389,728	0.18
		일본구미주 통상과	2,337,619		0.03
경기도	경제 기획관	외교통상과	15,916,360	29,964,297,117	0.05
경상 남도	기획 조정실	대외협력 담당관	3,380,264	10,620,430,053	0.03
경상 북도	일자리 경제실	외교통상과	12,033,624	10,654,809,000	0.11
광주시	행정 자치국	자치행정과	2,005,315	1,157,561,690	0.17
대구시	일자리 투자국	국제 통상과	38,930,660	7,357,200,000	0.53
대전시	기획 조정실	국제협력 담당관	64,143,310	4,714,970,000	1.36
부산시	성장 전략국	도시외교 정책과	5,639,693	13,301,004,419	0.04
서울시	국제 협력관	국제교류 담당관	2,175,914	40,156,241,928	0.01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5,332,536		0.01
울산시	미래성장 기반국	외교투자 통상과	13,875,449	4,066,117,500	0.34
인천시	일자리 경제본부	국제협력과	5,670,478	11,954,659,749	0.05
전라 남도	국제 협력관	-	8,423,848	9,202,286,176	0.09
전라 북도	대외 협력국	국제협력과	11,815,242	7,131,469,835	0.17
충청 남도	경제실	국제 통상과	4,699,668	7,225,893,000	0.07
충청 북도	경제 통상국	국제통상과	11,080,407	5,838,227,490	0.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평화대외 협력과	6,296,225	5,829,867,586	0.11

자료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이외 제주 국제평화재단의 경우 외교부와 제주도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 재단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연수,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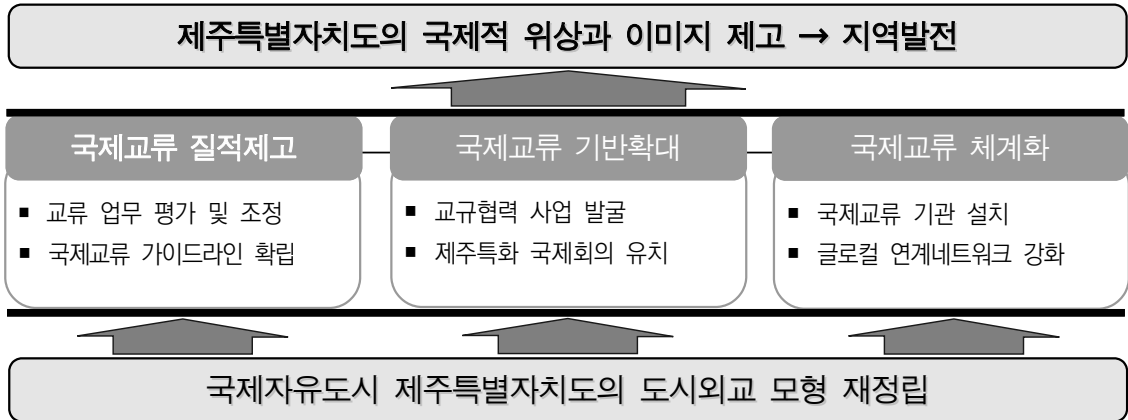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특징 및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을 지역 및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중일 양국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교류도시 다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의 국제교류에서는 뚜렷한 목적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서귀포시, 제주시 포함)는 총 698건의 국제교류 중 307건이 행정교류가 가장 많지만 교류가 실질적 이익이나 구체적 성과의 창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교류에서 지역 간 상호방문,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교류 도시의 발전전략이나 국제교류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제고되고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어 실질적인 경제교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들 지역과 국제교류를 진행할 때 한국의 다른 지자체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할지, 교류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외 교류대상지역에 대한 확장성 부족, 중장기 비전의 부재로 인한 지속성 제약, 국제교류 방식 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국제기구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 미흡, 제주 특성이 반영된 국제교류 미흡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컬(global) 시대에 있어 국제자유도시 위상과 역량에 부합하는 도시외교의 근간과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도시외교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사회에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발전 방향과 모형 제시가 필요하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추진되던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하여 그동안 중복 혹은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교류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국제교류의 질 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민간 부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관리운영체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적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제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여 제주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이익 확보를 통한 새로운 제주 지역발전 전략 모색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기본방향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외교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그 목표로서 첫째, 국제교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관리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제교류 가이드라인의 확립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비전 2040' 수립을 통해 국제교류의 단계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관·학을 연계한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교류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이미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평화 등 제주도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국제협력 사업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유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교류 체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주 맞춤형 국제교류 시스템 확립,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제주도의 산업 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 업무 지원과 관리체계를 체계화하고, 민간 부문과 연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환경은 타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되나, 국제교류를 위한 내향적 국제화가 더욱 제고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발전계획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운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는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비전 아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현재 단계에서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제2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수행기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교육 기능강화 방안

제주국제평화센터 - 한국평화종교학회
공동 학술회의



2022. 9.

[2022년 언론을 통해 본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서 ASEAN 만나요'...국제평화센터에 아세안
홀 개관(종합)

한겨레

우크라이나에서 재현된 73년 전 43의 아픔...제주서 뜻깊은 사진전



제주국제평화센터, (사)색동회와 어린이 보호·권리신장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가 기억하다'



HOME > 시화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강 본격화...전시·교육 프로그램 강화

서울신문

제주국제평화센터 베릿내홀, 작은도서관 변신
입력 : 2022-03-01 15:33 | 수정 : 2022-03-01 15:33
공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베릿내홀이 작은도서관으로 변신했다.

KBS NEWS

'제주아세안홀' 개관...동남아 10개국 교류
입력 2022-09-15 21:58:38 수정 2022-09-15 22:02:14

중영도서관을 기존 용역율이 새로운... 단을 활용에 조성... 온도서관과 인연지 문화관광-인적 교류 개관에 맞춰 각국의



뉴스
사태

다
대만
유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의 문
중문관광단지 국제평화센터에 문을 열었습니
... 100곳 새출발

백금학 기자 haku@halla.com

입력 : 2022.08.25. 16:23:42

목 차



1. 세계평화의 섬 '제주' (소개)
2. 평화가치 확산 수단으로서 **전시-교육** 활성화 필요성
(cf. 칼통의 평화론)
3. **전시분야**를 통한 평화가치 확산 방안
4. **교육분야**를 통한 평화가치 확산 방안
5. 맺음말

** 본 자료는 학술연구 목적 및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 자료,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관 소개

제주국제평화센터

1. 세계평화의섬 '제주' 소개(1)



- ▶ 규모: 부지 27,881㎡, 건물 연면적 7,122㎡ (지하 1층 / 지상 2층)
- ▶ 총 사업비: 25,089백만 원(국비 13,250 / 복권기금 11,000 / 도비 839 백만 원)
- ▶ 입주기관: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6.7.26
※ 운영규정 근거(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주국제평화센터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연혁



1. 세계평화의섬 '제주' 소개(2)

- ▶ `00. 12. 16 : (김대중) 대통령 제주방문시 정상외 집 건립 건의
- ▶ `02. 1. 23 : 건립부지 임대계약(한국관광공사)
- ▶ `03. 3. 22 : 건축공사 착공(공사기간 '03.3.20~'05. 6. 30)
- ▶ `04. 11월 : 건물 명칭 확정(제주미래니엄관 ⇒ 제주국제평화센터)
- ▶ `05. 01. 27.: (정부)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지정
- ▶ `05. 12월 : 전시 밀랍제작대상 협의 추진(31인 승낙)
 - 정상들의 정원 17인, 테마가 있는 정원 14인
- ▶ `06. 1. 31. :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재단설립등기
- ▶ `06. 3. 15.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 `06. 3. 24.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 ▶ `06. 9. 22. :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 `09.7~'11.4 : 한아세안 정상 6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양용은 골퍼 등 밀랍모형 제작
- ▶ `22. 08. 26. : ㈜SK 기증사업 - 그리팅맨 설치
- ▶ `22. 09. 15. : 제주-아세안홀 개관



제주국제평화센터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1. 세계평화의섬 '제주' 소개(3)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역할 강화

사회구성원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 노력

제주의 도시외교

- 국제교류의 질적 제고
-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신규 국제협력 사업 개발
- 민간부분과 연계한 지원 방안 모색



2. 평화가치 확산 방법으로서 전시-교육 활성화 필요성(1)

평화센터_ 새로운 평화가치 확산 방안 모색의 필요성



- 21세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최근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박물관, 미술관 분야는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 분야의 개념이 확장됨
-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며 AR, VR 과 같은 기존 작품 감상법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 해석 영역도 발견
-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홍보-교육 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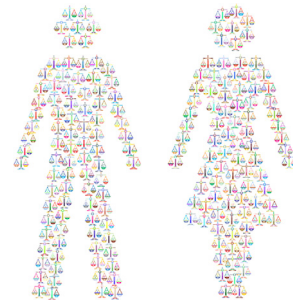


2. 평화가치 확산 방법으로서 전시-교육 활성화 필요성(2)

기존 세계평화의 섬 사업 평화 의미 재정립 모색 필요 (소극적 평화/적극적 평화)

- 소극적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적극적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



- 제주도(홈페이지)는 요한 칼통(Johan Galtung)의 평화론을 기반으로 평화 의미 설정하는 것으로 보임
- 1978년 제33차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正義)가 존재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화의 적극적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예라고 제시



제주국제평화센터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2. 평화가치 확산 방법으로서 전시-교육 활성화 필요성(3)

박물관/미술관(뮤지엄) 현황과 과제

THE WALL STREET JOURNAL

Home World U.S. Politics Economy Business Tech Markets Opinion Books&Arts Real Estate Life&Work Style Sports

Korea's Jeju Island's Battle of Museums Isn't Exactly a Culture War

Tourist Spots Dedicated to Teddy Bears, Sex, Chocolate, More Set Off Resort Squabble



Korea's Jeju Island's Battle of Museums Isn't Exactly a Culture War(2016)

1. 정부 현황(계획)

- 등록현황 : 총 1,717관 (박물관 900관, 미술관 271관)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 따르면 2023년까지 1,310개까지 확대해 1개관 당 인구수를 4만5,000명에서 3만9,000명 수준으로 확대 계획
- (cf) OECD 가입국 평균은 약 4만명당 1개소
문화 강국 독일의 경우 1곳 당 평균 인구 수는 1만2,000명

2. 제주 현황

- 등록현황은 총80여개관 / but, 미등록 예상수는 100여개
- 이는 도민 8,000명 당 1개 관 수준



제주국제평화센터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3. 전시분야를 통한 평화가치 확산 방안 (1)

문화산업으로서의 '평화전시' - 트렌드 선도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전시회

Exhibition for Peace of Ukraine

2022. 4. 27TH - 5. 2ND 10:00 - 18:00 명동성당 gallery1898

주최: 제주국제평화센터,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후원: BENO, THE WHITE HOTEL, 디어

1.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무형 및 문화적 형태로 존재하는 창의적 콘텐츠의 창조와 생산, 산업화 과정이 결합된 형태 (유네스코, 2006)

2. 전시문화산업의 특성 : 융-복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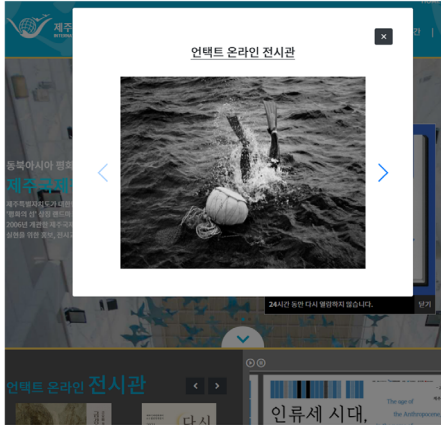
구성 콘텐츠의 분야에 따라 예술이나 공학, 과학, 역사 등 한계가 없다

3. 평화전시 콘텐츠 분야 지원 / 협력방안 모색

기획, 설계, 시공 전반에 창작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COVID-19 이후 전시 3대 구성요소의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 이후 전통적인 공간, 전시물, 관람자 라는 전시기
본의 3대 구성요소 개념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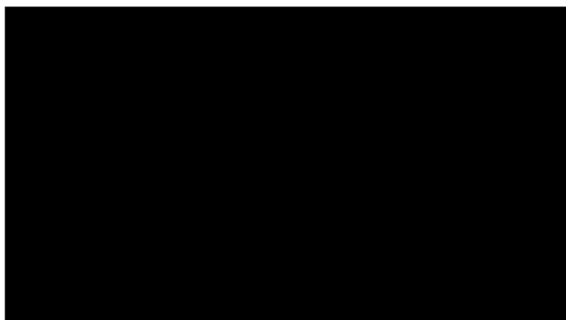
◆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무한대의 가상공간의 개념
으로 전환되었고

◆ 전시물은 디지털 이미지로써 고밀도, 고행상도 관찰이
가능해지며

◆ 관람자는 진품을 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이 아닌 장소
와 시간의 제한이 없는 접속도 선호



전시 분야 개선 방향



1. 온-오프라인 전시의 병행 및 360도 VR 전시관람, 학예
사의 전문 설명 동반, 유튜브 동영상 정보 확대 필요

2. AR, VR, MR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전시물에 대한 다양
한 접근 방법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3. 관람자의 참여 유도 및 피드백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AR도슨트 시범서비스



4. 교육분야를 통한 평화가치 확산 방안 (1)

평화교육 프로그램 목표 (≒ 세계시민교육)

1.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2. 빈곤, 불평등, 사회정의, 물과 식량 부족, 재난, 갈등, 평화 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소양
3. 공동체 문제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
4.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마음
5.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



4. 전시분야를 통한 평화가치 확산 방안 (2)

평화교육 프로그램 접근(운영) 방법 (1)

1. 통합적 관점과 다양한 접근
 - 이슈를 인권, 환경, 빈곤 등 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하게 됨
 - 사회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2. 비판적 시각과 창의적 사고
 -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제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함
3. 적극적 참여 유도
 -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화 가치를 확산하는 개인, 사회적 변화 방법을 찾는 태도를 갖도록 함



평화교육 프로그램 접근(운영) 방법 (2)

4. 대화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

- 지구촌 문제에 절대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
-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
- 대화라는 상호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함



맺음말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세계평화의섬 '제주'의 상징 시설로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중심기관의 역할을 해나가려 함.
- 개관 2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전후로 기존의 평화개념에 대한 발전된 논의 필요
- 전시/교육 분야는 평화가치 확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함
- 전시분야에서의 콘텐츠 다양화, 교육분야에서의 통합적 관점에서 대화를 통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함
- 평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안 관리 필요



감사합니다

(재)국제평화재단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227-24 Jungmun Gwangwang-ro, 63546, Jeju, Korea

<https://www.ipcjeju.com/>

** 본 자료는 학술연구 목적 및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 자료,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토론문]

“제주의 국제교류 특징과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토론문)

홍석훈(창원대 국제관계학과)

1. 도시외교 개념과 활성화

- 국가 간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방차원까지 세계화가 확산되는 셋방화(glocalization)를 언급
- 1995년 지방자치 시대를 출범시킨 한국은 분권화와 함께 도시외교(city diplomacy)의 권한을 자치단체(도시)에 이양하며, 국내 도시들은 자치단체 수준의 해외 교류협력을 개별적으로 추진(김영재)
- 국제교류는 국가 간 다양한 주체(국가,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등)가 다양한 목적(우호, 협력, 이해증진, 공동이익 추구 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주체 간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의미
- 대표적인 국제교류 유형으로는 자매결연, 경제통상 교류, 학술·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행정·인력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통상교류가 국제교류의 대부분을 차지
- ‘국가중심 외교(state-centric diplomacy)’와 ‘다중심 외교(multi-centric diplomacy)’ 사이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개념이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병립외교(para-diplomacy)’ 개념을 통해서 도시의 독자적인 공공외교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기능
- 도시외교 개념은 지방정부의 자치외교, 시민외교 및 도시 간 외교와 같이 다른 용어들이 도시외교로 통합되어 왔다(Sizoo and Musch 2008, 10).¹⁾ 평화 구축을 위해 ‘도시외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3년에 도시 네트워크인 ‘Glocal Forum’으로 ‘글로벌라 이제이션 아젠다’(glocalization agenda)를 통해 이를 잘 제시

1) Michael Shuman이 1982년에 설립한 ‘Center for Innovative Diplomacy’는 무엇보다도 국제 문제에 대한 도시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추진하였다.

- 도시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 구축(peace-building)’으로 도시외교가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
- 최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도시외교’(city diplomacy)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특징과 과제

- 본 발표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을 지역 및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중일 양국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교류도시 다변화를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함.
- 글로컬(glocal) 시대에 있어 국제자유도시 위상과 역량에 부합하는 도시외교의 근간과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도시외교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사회에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발전 방향과 모형 제시가 필요
- 현재 단계에서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제2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수행기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 제언..

3. 도시외교 개념의 재발견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활성화

-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활동 이외의 각 지역의 지자체(도시), 시민사회, 교육 및 연구기관, NGO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외교방안을 모색
- 도시외교를 자매결연 도시 간의 저수준 교류·협력으로 인지한다면 외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위한 외교적 분권(diplomatic decentralization)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음. *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도시외교(city diplomacy)’를 공식표현으로 사용
- 해외사례 분석: 국제개발협력의 규범인 인류 보편성의 인권과 평화에 집중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ODA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자체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평화를 지향
 - 체계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

- 각 지역의 독창적 이미지 메이킹과 해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타 지역의 콘텐츠와의 중복성과 지속성을 담보
- 햄(Peter Van Ham)는 “Social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2000)”에서 지방정부(the local governments)가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파워(in-between powers)”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양자의 신뢰와 정통성을 부여한다고 주장
-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 달리 외교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지속성을 담보: 각 국가의 지자체(도시)는 국가 차원의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시들은 다양한 종류의 협상에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기도 함.
- 제주의 도시외교는 세계평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 국내외적 소통과 교류의 범위를 제한시키던 이념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롭고도 다면적인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 도시외교를 통한 공공외교 확대: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법’은 정부 외교의 범위를 공공외교로 확대하여 적용.
 -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제도적 합리성과 명확성을 보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화된 ‘스마트파워’ 전략을 통해 전 지구적 연대가 가능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전제
 - 현재의 자매교류와 우호교류 범위에서 공공외교 수행 영역을 사회교류 및 경제교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성을 갖출 필요성

[토론문]

“제주의 국제교류 특징과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토론문

나용우(통일연구원)

- 이런 귀중한 자리에 토론자로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제주국제평화센터와 한국평화종교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체계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임
- 외교부 등 국가 차원에서 전개해왔던 전통적인 외교의 공간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공간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권위나 권한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국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도시의 역할 및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는 다른 도시들(혹은 지자체들)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며, 정지형 박사님의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은 도정에 반영되어 제주 도시외교가 업그레이드되길 희망함
- 도시(지자체)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공공외교 시행예산으로 약 5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 및 정책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표〉 지자체 공공외교의 유형¹⁾

콘텐츠별	지방자치단체
정책형	서울, 강원, 경북
문화형	부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정책+문화 복합형	대전, 제주, 충북, 제주
지식+문화 복합형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정책+지식+문화 복합형	울산

- 2020년 공공외교 시행예산은 약 61억 원 규모였으며, 문화 및 정책공공외교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올해 시행예산은 다소 감소했으나 추진 방향이 크게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제주 도시외교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 제주 도시외교의 목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로 설정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으면 어떨까 싶음. 예. 동아시아 ‘평화’ 도시 혹은 ‘탄소 중립’ 도시 등. 그러한 목표가 분명해져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최근 도시외교가 단순한 국제교류를 넘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문화, 지식, 정책이라는 3가지 유형의 공공외교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특징점을 활용해서 정책으로 반영해보는 것도 또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 도시외교를 구상함에 있어 ‘제주형 지식공유사업(Jeju-styled Knowledge Sharing Program, JKSP)’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예. 자카르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나용우,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13.

[토론문]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교육기능강화 방안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세계 주요 도시와의 평화 네트워크 구축

- 제주의 친선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평화 네트워크 추진
 - 전체 친선도시들의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도시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추진
- 제주국제평화센터 또는 제주평화연구원을 활용하여 세계 유수의 평화 연구센터(연구기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추진
 - 도시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제주국제평화센터 또는 연구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각종 학술회의, 전시회, 교육 등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끈끈한 연대의 기반 마련 가능
- 세계 주요 도시의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분야별로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추진

2.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외교, 즉 도시 디지털 외교에 대한 관심 증가
 - 세계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 시티’에 집중해 왔으며, 이는 도시정부의 디지털 외교로 이어짐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외교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활용

- 도시 외교는 디지털 수단과 접목될 때 사업의 확장성이 커지며 외교 대상의 접근성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제주의 도시 외교, 제주국제평화센터도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목표와 방향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시-교육 기능강화 방안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계자 이외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음
- 우선적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시-교육에서 ‘스타성’ 즉,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재 발굴이 필요
- 또는, 예를 들어 개그맨 이영자가 방문한 음식점 또는 카페가 문전성시를 이루듯이 스타성 있는 연예인의 방문을 통한 강한 인상 부여도 고려
- 교육 기능은 국제평화센터 단독도 좋지만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 이는 국내외 학회 또는 평화단체와 종교단체와의 공동 작업도 필요
- 교육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 외연 확장 이후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

//끝//

[토론문]

제주의 도시외교와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교육기능강화 방안

리은경(연세대학교)

제주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온 대표적인 지자체이다.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 시설로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있고 뜻깊다.

갈등의 이분법적인(소극적/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고, 결론 부분에 '기존의 평화개념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지향하는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계속되는 관광객 증가와 개발 압력,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교통과 생활쓰레기 등 성장 부작용으로 도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전국에서 제주도가 범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율 증가를 난민 유입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도 있는 거 같다. 도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제주가 평화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많은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도내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종합토론〉

분쟁과 종교, 그리고 평화

주재완(선문대학교), 주우철(세계평화교수협의회),

황진수(선문대학교), 홍석훈(창원대학교),

나용우(통일연구원), 고경민(제주국제평화센터장)

종합토론문

주재완(선문대학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화종교 학회가 ‘분쟁과 종교,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 전쟁 속에서 러시아의 정교회와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종교가 분쟁과 평화의 주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종교는 인류 문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원동력이며 토대였다. 종교는 인간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지만, 역사 속에서 갈등과 전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종교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지구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1세션에서 발표된 논문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는다. ‘분쟁 후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 논문은 북아일랜드 트리블 사태에서 종교의 역할을 분석 평가한다. 이를 위해 프레저와 프리드리가 제안한 분석의 틀을 사용한다. 분쟁 이후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기존 정치 외교적 틀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 트리블 분쟁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다른 한편 그들 가운데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종교지도자와 단체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목표를 성취했다. 논문은 종교가 화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 4.3사건과 분쟁 그리고 종교’ 논문은 이곳 제주도에서 벌어진 4.3 사건에 종교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종교가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비뚤어진 신앙심”이 비극적 결과를 증폭시키는 잘 분석되어 있다. 기독교가 불교계를 탄압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4.3 사건도 정치의 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종교를 포함한 확장된 틀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사건에서 종교가 종교적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 위 논문에서 사용된 프레저와 프리드리의 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분석의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종전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기반 NGO의 역할’ 논문은 한국전쟁 후 메노나이트 종단이 한국 사회에서 전개한 평화운동을 살펴보고, 이것에 가정연합의 견해와 사례를 첨가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FBO의 역할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메노나이트의 평화활동은 종교가 분쟁을 대하는 태도와 분쟁 후 평화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이

다. 논문은 메노나이트의 한계도 말한다. 국가와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다른 한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과 평화운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독교 내에서 메노나이트의 분리주의는 비판받기도 한다. 분리주의와 사회 속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는 것 양자가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앞의 두 논문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는 종합되면서 어떤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사회현상은 이 둘을 함께 포괄하는 틀로 더 잘 분석된다. 메노나이트의 평화운동도 위의 분석을 틀에서 살펴보면 좀 더 풍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메노나이트의 평화활동 자체는 종교가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와 사회를 떠난 맥락에서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평화는 종교와 함께 정치와 사회를 모두 포괄해야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가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사회와 연결되고 이들을 평화의 방향으로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4.3 사건이 보여주듯이 잘못된 신앙과 정치세력이 결합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적 이기주의는 평화를 어렵게 만든다. 종교적 이기주의가 정치세력과 잘못 결합되면 파괴적 폭력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세력은 줄곧 종교적 이기주의를 이용하려고 항상 기회를 엿본다. 종교가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려면 먼저 종교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를 평화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